

청소년을 위한 단재총서 I

칭파오(淸袍) 많은 조선선생

헤이징의

단재

• 저자 •

김승환 충북대학교 국어 교육과 교수
단재문화예술계진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박걸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허 원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단재문화예술계진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문종 청주대학교 강사 - 언론학 박사

최옥산 중국대의경제무역대학 교수

이재표 충청리뷰 기자

조창완 알자여행사 대표

청파오(淸袍)입은 조선선비

베이징의 단재

청파오(淸袍)입은 조선선비

메이징의 단재

지은이 김승환 외

발행일 2009년 2월 28일

발행처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6 청주문화관 4층

Tel. 043) 250-0180 Fax. 043) 254-0141

www.danjae.or.kr

디자인 디자인101 Tel. 043)254-0140

©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본 책의 저작권은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출판은 물론 도판의 사용, 변형 및 복제, 영상제작 등 일체의 부제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매품



청파오(淸袍) 입은 조선선비
헤이징의
만주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No.1 총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단재 신채호 07

김승환 (단재문화예술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단재 신채호의 일생 08 / 사후의 단재 신채호 14 / 신채호의 사상과 사관(史觀) 19

신채호의 미학(美學) 21 / 신채호의 혁명론 24

No.2 독립운동

‘죽어서도 사람’ 인 단재 신채호의 독립투쟁 29

박결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 30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 주도 35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에 참여 38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와 결별 41 / 「조선혁명선언」의 기초 45

체포와 순국 47 / ‘죽어서도 사람’ 인 단재 신채호 51

No.3 역사

절망과 저항의 시대 역사가, 단재 신채호의 역사인식 55

허원 (단재문화예술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올바른 역사인식의 의미 56 / 단재선생의 역사연구과정과 저술들 59

단재선생의 주요 역사저작과 그 내용 61 /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73

No.4 언론

단재 신채호의 해외 언론활동 77

김문중 (청주대학교 강사, 언론학 박사)

언론인으로서의 단재 신채호 79 / 러시아에서의 언론활동 81 / 상하이에서의 언론활동 88

베이징에서의 잡지 『천고(天鼓)』 발행 94 / 맺는말 98

No.5 문학

단재 신채호의 문학 109

김승환 (단재문화예술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신채호의 문학과 그의 시대 110 / 시 114 / 소설 118 / 문학환경 126 / 문학관 131

No.6 북경에서의 문학 활동

칭파오(清袍)입은 조선선비, 베이징의 단재 137

최옥산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

정양먼(正陽門)에 들어선 외로운 망명객 138 / 고도(古都)의 옛 거리 진스팡제(錦什坊街)에서 140
꾸러우(鼓樓)의 북소리를 들으며 142 / 찻오편우후통(炒豆胡同)의 기억 145
빈한(貧寒)이 깔린 따허이후후통(大黑虎胡同)과 함께 147
스명안(石燈庵)의 정취를 느끼며 151 / 선량쓰(賢良寺) 불상을 향한 비탄 152
까오리잉(高麗營)의 발견 154 / 상광산(上方山), 홍뤄산(紅螺山)에서 번뇌를 넘고 155

No.7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명 유적지를 따라 I

만주에서 베이징까지 6일의 기록 161

이재표 (충청리뷰 기자)

- ① 휘순감옥의 단재, 수감방도 몰라 166 / ② 단재...베이징에 올린 하늘북 172
- ③ 대한남아, 대륙인과 통(通)하다 187 / ④ 다시 서는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혼(魂)이어 195

No.8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명 유적지를 따라 II

광활한 중국 땅을 덮고도 남는 단재의 기상을 만나자 203

조창원 (알자여행사 대표)

단재 선생의 순국지 다렌 206 / 다렌의 중요한 볼거리 209

단재 선생의 뜻을 이어 고구려를 만나다 213 / 단재 선생이 가장 오래 거주한 베이징 215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단재 신채호 선생

No.1 총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단재 신채호

김승환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단재 신채호

단재 신채호의 일생

단재 신채호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위인이다. 한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이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다. 또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한 언론인이자, 식민지·반식민지하의 조선인들을 일깨운 교육자이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거니와 그것은 과연 많은 한국사가 연출한 장엄한 서사시라고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조선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다. 이처럼 그의 무서운 정신과 삶 때문에 큰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도리미에 있는 단재의 생가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뤄순 감옥에서 타계했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에 부모의 고향인 청원군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운동을 위하여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1908년 「독사신문」과 같은 논단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성균관의 박사로서 연구와 강의를 하던 단재는 을사늑약 이후, 다른 무엇보다도 기울어 가는 국운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민족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1907년 자강운동이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가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단재의 소설창작과 논설쓰기는 상통한다. 그리고 신민회 가입이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상통한다.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념이었던 것이다.

1909년 단재를 포함한 지사들이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지만 일제의 마수가 조선의 운명을 끊어 가고 있었다. 이듬해 4월, 일제강점을 예견한 단재

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靑島)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다. 이처럼 단재는 조국을 떠나 유랑의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민족해방을 위한 일념으로 정신과 육체를 불태웠으니 참으로 장렬하고 참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13년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하이로 옮겨간 단재는 박은식, 조소앙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1915년 무렵부터 단재는 조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는 한편 고대 한국의 영토였던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훗날 민족사의 무대를 한반도 중심에서 대륙 중심으로 확장시킨 출발 지점이었으며 김부식을 사대주의로 인식하도록 만든 민족주의 사관의 토대가 된다.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립하다가 공직을 사퇴한다. 당시 단재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1921년 4월,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건을 성토했던 후 임시정부를 떠났다. 이처럼 외교론, 준비론, 그리고 자치론을 비판하고 또 이광수나 최남선의 문학을 비판했던 그의 사상은 무장투쟁과 민중직접혁명으로 압축된다. 이 일로 이승만과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어서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시절에 단재는 불온 내지 금기시되었다.

단재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와 같은 권력이 없다면 제국주의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1922년, 무정부주의 선언문으로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되는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의 직접혁명과 아와 비아의 투쟁을 핵심으로 한다. 이 선언에서 단재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테러로 아(我)가 비아(非我)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재가 어떤 경로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무정부주의는 이론적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실천적 무정부주의로서 민족해방의 방법이었던 점이다.

한편 단재는 1927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난 신간회(新幹會)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와 국내의 해방전선을 모색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외국 환어음변조 사건으로 1928년 타이완(臺灣)의 지룽(基隆)항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고 1936년 옥중에서 죽었으므로 그의 대외 활동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지만 그의 역사연구와 집필과 저항은 옥중에서 더욱 빛난다.

옥중에서도 그는 강철 같았다. 원래 병약했던데다가 오랜 수감생활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재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병보석이었다. 1936년 이국 땅 감옥에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선에서의 지원도 끊겨 그야말로 천애벼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러나 단재

는 병보석을 단호히 거절했다. 친일파가 주선하는 보석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다. 그해 2월 21일, 단재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이튿날 휘순감옥의 어느 곳에서 화장되어 몇 줌의 잔뼈와 재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라던 그는 한 줌 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수인번호를 단
휘순감옥의 단재

사후의 단재 신채호

단재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그의 한 줌 유골이 압록강을 건너고, 2월 24일 경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충북 청원군 귀래리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에 올라 있을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 단재는 일제의 신민이 되는 것이므로 단재는 단호히 호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 살아서 한국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했지만, 단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이르러 겨우 호적을 되찾게 된다.

죽어서도 단재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가매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처럼 단재는 민족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고 죽어 버린 것이다. 한편 상하이임시정부 당시 이승만을 의정원에서 축출하려 했던 인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단재는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단재가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민중직접혁명론을 주장하고 무장봉기나 폭력 암살 등 테러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단재와 독립운동가들을 추앙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이리하여 충북 청원군 귀래리에 사당이 세워졌고 묘소가 단장되었다. 서서히 역사에 복권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재가 완전히 복권된 것은 대략 1988년 전후다. 세계화를 향한 열린 정책을 포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있는 단재 사당

방한 한국 정부는 이른바 해금조치를 시킨다. 이때부터 월북, 납북된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소지할 수 있게 되면서 단재도 온전히 복권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비타협주의자, 고집불통 등이 단재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야말로 단재의 빛나는 부분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단재는 무정부주의자였다. 무정부주의(anarchism)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르는 인간해방운동의 하나로서, 정부가 없거나 최소한의 관리체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제도다. 선사시대 이후, 인류는 국가라는 틀을 중심으로 생존해왔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을 억압하는 기능도 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영국·프랑스·독일과 같은 일부 부국강성한 국가들은 침략을 용인하는 제국주의가 되었다. 자기 국가의 자본과 상품을 위하여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수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비서구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완성했다. 그들은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한론(征韓論)을 발전시켜서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확대 되면 제국주의가 되는 사실을 목도한 단재는, 국가라는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 이론을 무정부주의에서 찾았다.

단재가 민족주의자이면서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조선해방의 방법으로 타당하다는 믿음이 곧 단재사상의 핵심이다. 단재에게는 피압박 민중이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대결한다는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원론적으로 지배나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무정부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던 것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청주예술의전당 앞 단재 동상

이다. 철학과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있던 단재로서는 무정부주의야말로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모든 피압박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단재의 사상은 절대주의다. 그에게 조선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도 옳았다. 한편 단재는 양반계급 출신의 계급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깨어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었다면 지조와 충절을 소중히 여기는 봉건양반으로 일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완고한 의식을 가진 단재는 첫째 부인이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하여 죽게 만든 것을 계기로 부인을 쫓아 버렸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인 봉건유교의 가부장 권위를 가혹하게 행사했던 것이다. 또 여성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쳐 버리기도 했다. 이것은 페미니즘(feminism)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단재는 여성의 계몽을 위하여 노력했고, 평소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괴팍한 성격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뇌와 이상을 가진 단재는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다.

신채호의 사상과 사관(史觀)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강성한 국가들은 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가 되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이룩했다. 그들은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한론을 발전시켜서 가까운 나라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단재는 국가를 부정해야 하는 운명의 길을 가야만 했다. 초기에 학자였던 단재는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주의자가 되었다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에 심취했다. 곧이어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로 옮겨갔다. 그것이 조선을 독립시키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독립만이 모든 것이었던 단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합리적이다. 「조선혁명선언」에서 ‘일본천황, 관리, 친일주구’ 등을 지목하여 살해하자고 한 것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리즘(terrorism)에 해당한다.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테러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해방시키고, 피압박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민족해방의 지름길이었다. 이처럼 단재는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단재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민족해방이라는 목적을 절대화시키면서 비타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칼날 같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적이 많았고, 투쟁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하고 위험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아마도 단재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의 절대주의 사상은 역사연구에서 찬란하게 빛난다. 단재에 의하면 김부식은 신라중심사관을 세워 한국사를 한반도에 국한시킨 민족사의 대역 죄인이다. 단재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매양 국사와 지나사에 서로 충돌되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국사의 기록을 버리고 지나사를 좇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 단재였기에 민족사의 무대를 만주까지 확장하고 고구려중심사관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이것은 고구려적 기상과 기백으로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종의 학문적 실천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원리에서 단재는 이승만의 외교론을 비판했고 안창호의 준비론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민족절대주의를 마지막 경계까지 밀고 나간 것이다.

명재상이며 대학자이자 한국사의 정사 서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부식에 대한 단재의 공격은 매우 날카롭고 또 단호했다. 오늘날 남한과 북조선의 분단체제도 신라중심사관과 고구려중심사관의 결과라고까지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 문제는 김부식을 넘어서서 민족사 전체를 관류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런 원리에서 단재는 민족을 계급으로 보았다. 조선민족이라는 계급은 일본민족의 지배를 당하는 약자였다.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고, 그것도 극단적인 저항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테러도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발전의 단계 또한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한다고 보지 않고, 식민사회에서 독립사회로 간다고 보는 민족절대주의라는 특별한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신채호의 미학(美學)

단재는 많은 글을 쓰면서도 자신을 문인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문학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문인이라 칭하고 또 그가 쓴 문예적인 글을 문학이라고 규정한다. 단재에게 있어 문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문학이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작품을 써야 했던 것이다. 논설, 연설, 논쟁, 여행도 모두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문학과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태도와 아울러 주자학적 유가의 전통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단재의 문장은 거칠고 격정적이다. 비감과 의기에 찬 강개는 단재의 인간됨됨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거니와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이것을 중국 연변대학교 총장 김병민 교수는 '사회미학'이라는 개념과 반침략반봉건 애국투쟁의 역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격정적이고 웅장하며 환상적이고 비분강개한 그 문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단재의 비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글이 「천고송(天鼓頌)」이라는 시다. 하늘의 복인 「천고송」은 단재가 상하이 시절에 발간한 『천고』 제1권 제1호의 첫째 쪽에 실려 있는 한시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네 하늘북 치는 사람을
능히 슬피하기도 성내기도 하네

애처로운 소리 슬프고 노한 소리 장하여
이천만 동포를 일어나게 하는구나

의연히 죽음을 결심하면서
조종을 빛내고 강토를 회복하려하네

오랑캐의 피를 모아서 다하도록
우리 하늘복에 피를 칠하리라

고래로부터 동아시아에는 혼종의식이 있었다. 북을 만들어 소의 피를 칠하는 것인데, 단재는 바로 이 혼종의식을 빌어 장중하고 비감한 시를 썼던 것이다. 혼종의식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족 전체를 울리고자 하는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필살의 절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애처로운 소리, 노한 소리는 조선인들의 비통한 심정이다. 죽을 결심은 민족해방을 위하여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이처럼 피를 온몸에 칠하고 강토를 회복하려는 절절한 심정은 천하에 하늘복이 울리는 것처럼 장엄하다.

망명한 지사의 이상과 민족의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갈등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하는 환상성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 환상성은 현실인식과 반비례하면서 격정과 강개를 증폭시킨 것이다. 비장하고 비감하며 강고하고 의기가 넘치는 이 고결한 정신세계는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으로 인하여 거친 문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강개함 때문에 전통적 문장의 기법인 열거와 반복이 이어지며, 비분함 때문에 영탄과 강개가 심하다. 좋은 문장이기는 하지만 아름다

운 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민족이 멸망했다는 치욕을 단재는 자신의 일로 간주했으며 소아가 아닌 대아(大我)를 잃어버렸다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문장에서 격정적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치욕과 울분과 원한과 복수의 일념은 생애와 문장이 완전한 상동성을 이루면서 형식을 초월하여 종횡무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재의 문장이 비장미와 숭고미를 보이는 것은 단재의 사상적 일원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비타협 직접혁명의식의 반영이다. 단재는 문학과 사회, 작품과 작가, 삶과 죽음 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민족이라는 근본원리의 단순한 변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원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 상징적 표현체계가 바로 「조선혁명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단재는 '자기 종족의 보전도 어려운데 무슨 문학을 하느냐?' 라고 통탄했다. 그러니까 문학 이전에 민족이었다. 1923년의 이 문장은 비장함을 본질로 하면서도 희망과 전망을 신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여기서 희망이라 함은 낙관적 희망이 아니라 비극적 희망인 동시에 강개한 희망으로 단재만이 가진 특이한 비장미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단재가 민족혁명을 문학으로 표현했고 철저한 신념 속에서 혁명의 문체를 썼다는 점이다. 혁명은 자기의 절대적 정당성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소아인 나와 대아인 민족에 신성성을 부여했으므로 문장의 표현은 간결하고 선명하며 또 격정적이고 치열했다. 한마디로 집중을 위한 반복과 선명을 위한 영탄은 단재의 세계관이 지시한 문장의 기법인 것이다. 단재의 미학은

비장미, 승고미로 압축되지만 사실 단재는 그런 미학적 의식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민족독립보다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채호의 혁명론

단재는 조선 해방의 방략으로 민중직접혁명을 주장했다. 이승만의 외교론, 안창호의 준비론 등은 조선 해방의 점진적이거나 간접적 독립운동을 목표로 했다. 반면 단재는 조선인 전체가 봉기하는 직접혁명의 방법을 주장했다. 「조선혁명선언」은 그 혁명의 격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단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 안에 강도일본의 제조한 혁명원인이 산같이 쌓이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참절 장절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흑암한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기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참절 장절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오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민중은 오즉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세력을 파괴할 것 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야,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 무다리 위' 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이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현대어로 고침 - 집필자)

민중의 직접혁명으로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권력을 타도하자고 했던 단재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 민중에 놓여 있다. 그런데 단재가 민족적 의미에서의 민중개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민족과 민중의 일치는 단재로부터 유래하는데, 이 계보는 훗날 1980-9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단재는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민중으로 놓고 피압박 세계인민을 민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민중이고자 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그의 혁명관은 아(我)인 조선과 비아(非我)인 일본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설과 유사하지만 그 출발은 다르다. 단재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모순과 부당을 인식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아와 비아의 투쟁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일체의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죽음을 각오한 투쟁만이 필요하다는 단재에게, 아인 조선과 민족은 절대적인 선(善)이었다. 선악의 선명한 이분법을 통하여 일단 자주독립을 이룩하기까지가 그의 혁명관이었다. 이런 견결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승만이나 안창호 그리고 이광수나 최남선과 같은 노선은 타협주의나 기회주의로 보였던 것이다. 단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그리고 민중의 직접혁명론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일관된 생애 속에서 그는 철저한 비타협 노선을 견지했다. 이것을 절대주의와 일원론인 민족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신성한 차원에서 보고 대아의 실현체로서 소아인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형식이었다. 단재의 민족사적 의의는 삶과 죽음의 절대주의, 즉 일원론에서 찾아야 한다. 「조선혁명선언」에서 주창한 민중의 직접 혁명은 「용과 용의 대격전」 「꿈하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한 단재는 식민지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민중적 세계관 속에서 잘 담아내고 있다. 단재는 한마디로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주의자였고, 민족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절대주의자였다.





겨울, 지안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 북한지역

No.2 독립운동

‘죽어서도 사르니’인
단재 신채호의
드림투쟁

박걸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죽어서도 사람’인 단재 신채호의 독립투쟁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

국내에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계몽운동을 펼치던 신채호는 나라의 운명이 크게 기울던 1910년 4월 망명길에 나섰다. 망명객인 그의 등에는 피나리 붓짐이 하나 매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실학자 안정복이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한 『동사강목』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 동지들과 망명길에 나서면서도 굳이 역사책을 지니고 간 것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다운 일로서, 역사 연구를 또 하나의 독립투쟁으로 여긴 그의 마음을 잘 보여 준다.



1919년 상하이 망명시기의 단재 신채호, 신석우 그리고 예관 신규식
(왼쪽부터)

신채호는 항일투쟁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와 동양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의거가 일어나자, 일제는 신민회 회원을 잡아 가두는 등 탄압을 가하였다. 1910년 3월, 신민회 간부들은 양기탁의 집에 모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일제의 탄압으로 항일투쟁을 벌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지들을 국외로 망명시켜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장차 일제와의 직접 투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를 독립전쟁론이라고 한다.

안창호, 이갑 등의 동지들과 함께 망명길에 나선 신채호는 도중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들렀다. 오산학교는 같은 신민회 동지인 이승훈이 건립하여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었다.

국내 유일의 민족 언론인 『대한매일신보』에서 날카로운 항일 언론 활동을 벌이던 유명 인사인 단재가 오산학교에 도착하자 교사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영회를 열어 주었다. 학생들의 환영의 노래와 신채호의 약력 소개, 오산학교 교사인 이광수의 환영사에 이어 그가 답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시 그는 코 밑에 약간 수염이 난 샌님의 모습이었고, 머리는 뽀뽀 깎았으며 풍채도 그리 좋지 못하였다. 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검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웃고름도 아무렇게나 매어 볼품이 없었다. 그가 일어서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입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범한 눈빛으로 그들을 한 번 둘러 볼 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마디의 말이나 목청껏 외치는 웅변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이었다.

그가 오산학교에 머물 때의 일화이다. 그는 세수를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 옷을 버리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여준 선생이 단재에게 “에익, 으응, 그게 무슨 세수하는 법이람. 고개를 좀 숙이면 방바닥과 옷을 안 버리지”라고 하니, 단재는 “그러면 어때요?”라고 하며 여전히 고개를 뺏뺏이 들고 물을 찍어 바를 뿐이었다. 그는 평생 머리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좀 괴팍스런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철저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산학교를 떠난 단재 일행은 다시 망명길에 나서 철로를 이용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립투쟁에 나서는 결심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나는 제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비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리가
줄줄줄 흘러
나리오리다
한나라 땅에 골고루 뿌려서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 「한 나라 생각」 -

중국으로 망명한 단재와 동지들은 이해 7월, 산둥반도에 있는 칭다오에 모여 이른바 ‘칭다오회의(靑島會議)’를 열었다. 이 회의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후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칭다오는 독일의 종착지로서 교통의 요지였고 국내에서 탈출해 오는 애국지사들이 모이기 편리한 국제적인 요충지였다. 이 회의에는 단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인 안창호·유동열·이갑·이종호·이강·조성환 등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먼저 중국 지린성 밀산부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단재는 이갑·유동열 등과 함께 이 학교의 교사가 되어 국사와 한문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밀산으로 가기로 결의하였다.

망명 이후 신채호 1936년 뤼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26년을 외국에서 보냈다. 그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낸 약 3년을 제외하고 그는 대부분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활동 지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를 전후하여 일시 상하이에 머물기도 하였으나, 주로 베이징에서 활동하였다.

1917년, 단재는 단 한 차례 국내에 몰래 들어왔던 적이 있다. 그가 일제에 체포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로 들어온 것은 조카 딸 향란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다. 단재는 아버지처럼 따르던 형님이 일찍 죽자 형님의 유일한 혈육인 향란을 몹시 사랑하였다. 단재는 망명할 때 향란을 데리고 갈 수 없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 시절의 동지인 임치정에게 맡겨 두었다. 그런데 임치정이 자신의 조카딸을 친일파에게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이징에서 차비를 꾸어서 국내에 들어 온 것이었다. 그는 조카딸을 만나 친일파와의 혼인을 막으려 설득하였으나, 임치정의 말에 현혹된 그녀는 삼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그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조카딸이 아니고 나는 너의 삼촌이 아니다. 골육이라도 이렇게 끊어 버린다”고 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 친일파를 배격하는 그의 단호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 주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단재에게는 러시아 입국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단재는 베이징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통해 입국 증명서를 받고 1910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그는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또한 독립군을 조직하자던 계획도 유동열과 김희선이 엔타이에서 일제 관헌에 붙잡히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신채호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그

는 이 지역의 한인 단체인 '권업회'에 참여하였다. 권업회는 나라를 잃어 망국민이 되고만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직한 단체이다. 권업회의 조직 목적은 동포들에게 실업을 권장하고 노동을 소개하며 민족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망국 후 조직된 최대의 한민족 독립운동단체였다. 그러나 단체의 명칭을 표면상 경제기관인 것처럼 권업회라고 한 것은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피하여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1년 12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있는 한민학교에서 권업회의 공식적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이상설이 회장, 이종호가 부회장에 선임되고, 주요 부서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이 때 신채호는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

권업회에 참가하기 전 단재는 '청년권업회'라는 단체에 참가하고 있었다. 청년권업회는 1911년 6월 18일부터 『대양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사장은 최재형이었고 신채호가 주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부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맡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주필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청년권업회는 '권업회 발기회'와 합하여 권업회로 발전하였다. 권업회에서는 기관지로서 『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신채호는 권업신문의 창간시부터 주필로 활동하였고, 한 때 신문부장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신채호는 1913년 상하

이에 있던 신규식의 간절한 권유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상하이로 갈 때까지 이 신문의 주필을 담당하였다. 그 이후 1913년 10월부터는 이상설이 신채호를 대신하여 주필을 맡기도 하였다. 신채호는 『권업신문』의 주필로서 논설 등을 통해 동포들의 독립사상을 일깨우고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특히 나라를 잃은 지 꼭 2년이 되는 1912년 8월 29일에는 기념호를 발행하고 ‘이날’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사천년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천만 동포가 노예가 된 ‘이날’을 잊지 말고 해방의 기념일로 바꿀 때까지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1912년 윤세복·이동휘·이갑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광복회는 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두었고, 후에는 만주의 회인현과 안동현에 지회를 두기도 하였다. 광복회의 회장은 윤세복이, 부회장은 신채호가 맡았으며 총무는 이동휘가 맡았다.

광복회는 신민회와 대중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하여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광복회의 활동자금은 대중교 측에서 많이 냈으나,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간 것은 신민회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광복회는 2만 여명의 회원을 가진 대규모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였고, 1913년경부터는 국내에서는 박상진·김좌진·채기중·김한중 등이 참여하여 국내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광복회는 조국 독립을 목표로 독립사상과 신교육 보급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의 설립과 군사교육 실시, 독립운동 자금 모

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회원들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미리 「통고문」과 「고시문」을 보내 군자금 모금에 협조할 것을 알리고, 비밀리에 찾아가 받는 방법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광복회원들은 만약 군자금 모금을 거부하거나 일제 경찰에 밀고하는 친일 부호들은 단호히 처단하였다.

광복회의 「통고문」과 「고시문」은 바로 신채호가 쓴 것이다. 신채호는 여기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강조하며 군자금을 기꺼이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이다. 곧 광복회는 3·1운동 이전까지 1910년대의 비밀결사 투쟁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신채호가 쓴 「통고문」과 「고시문」은 광복회의 군자금 모금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1918년 일제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에 참여

한국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몇 차례의 중요한 ‘선언’이 있었다. 「대동단결선언」(1917. 7)과 「대한독립선언」(1919. 2)은 그 대표적인 선언이었고, 신채호는 독립운동계의 대표적 인물로서 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당시 독립운동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하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신채호는 1913년 신규식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독립운

동 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한인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박달학원'의 교사로서 역사를 가르쳤다. 이듬해에는 대종교도 윤세복 형제의 초청으로 서간도로 가서 약 1년간 머물렀다. 이 때 그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고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사』를 집필하였다. 이 때 그는 대종교적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간도에서의 활동은 훗날 그의 민족주의 역사인식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15년 동지인 이회영의 권고로 베이징으로 가서 3·1운동 때까지 약 4년간 머물렀다.

그러던 1917년, 그가 상하이에서 참가하여 활동한 바 있던 동제사 동지들을 중심으로 「대동단결선언」 움직임이 있자 그는 이에 끼여 동참하였다. 「대동단결선언」에는 그를 비롯하여 신규식·조소앙·신석우·박용만·한진교·홍명희·박은식·윤세복·조성환·박기준·신빈·김규식·이주혁 등 14인이 서명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대동단결의 필요성, 국내 참상, 해외 동지의 역할, 국제 환경, 대동단결의 호소와 강령 및 이에 대한 입장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은 고종이 왕권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왕권의 행사와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이것을 해외 동지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하였다. 즉, 독립된 조국으로서의 원만한 국가를 위해 임시정부와 같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대회의인 통일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여 후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국내에서 3·1운동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을 무렵, 만주 지린에서 대한독립의군부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를 망라하여 39인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일명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를 발표한 시점을 음력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인데, 「대한독립선언」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대한독립선언」은 신채호를 비롯하여 김교헌·김규식·김동삼·김약연·김좌진·김학만·정재관·조소앙·여준·유동열·이광·이대위·이동녕·이동휘·이범윤·이봉우·이상룡·이세영·이승만·이시영·이종탁·이탁·문창범·박성태·박용만·박은식·손일민·신규식·안정근·안창호·임방·윤세복·황욱·최병학·한홍·허혁·황상규 등 남북 만주와 중국 관내, 노령, 미주 등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가 대거 참여하여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이 선언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서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은 일제하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보다 먼저 해외에서 발표됨으로써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과 3·1운동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와 결별

단재는 1919년 3월, 베이징에서 3·1운동의 감격스런 소식을 듣고 조성환 등 동지들과 다시 상하이로 왔다. 4월 10일과 11일, 그는 프랑스 조계지인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29인의 동지들과 함께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 정부인 한성정부의 법통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한 것은 당시 조직된 다른 어떤 임시정부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충실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11일 진행된 회의에서 단재는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고 말았다. 당시 신채호는 박용만을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단재 자신도 현창운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단재가 이승만을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그가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에 의뢰하여 통치해 달라는 이승만의 방안은 절대독립론과 완전독립론을 주장하던 단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국 매족’ 적인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당선되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열혈 청년들의 생명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 등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이다”라고 꾸짖으며 회의장을 퇴장하였던 것이다.

단재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단재는 동지인 박은식과 김창숙과 만나 논의한 결과 이승만을 임시정부에서 쫓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취소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승만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이들은 임시정부로 가서 이승만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임시정부의 붕괴를 우려한 다른 요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단재로 하여금 임시정부와 헤어지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단재가 이때 임시정부와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임시의정원 제2회 회의(1919. 4. 22) 때 의원으로서 참가하였으며, 제5회 회의(1919. 7. 7 ~ 7. 19) 때에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단재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던 1919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시정부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단재는 제6회 의정원 회의(1919. 8. 18~9. 17)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 임시정부를 완전히 떠났다. 그 까닭은 이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선출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를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더욱 큰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단재는 임시의정원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즉, 이전에는 이승만을 반대하는 입장

에서 이제는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었다.

단체의 임시정부 반대 투쟁은 ① 신대한·천고·대동 등 잡지의 발간, ② 군사 통일회의 개최 등 베이징 무장투쟁 세력과의 연대 ③ 임시정부 반대 단체의 조직과 주도, ④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 및 창조과 활동, ⑤ 「성토문」 등의 발표를 통한 반이승만·반임시정부 투쟁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등 온 힘을 다한 것이었다.

단체는 상하이에서 4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신대한동맹단을 조직하여 부단주를 맡았으며, 이해 10월 28일 기관지로서 『신대한』을 간행하였다. 신채호는 『신대한』을 통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나 임시정부의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 노선을 비판하고 일제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신채호의 『신대한』을 통한 임시정부의 비판은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지지하던 『독립신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독립신문사측에서는 단체를 회유하여 『독립신문』의 주필로 모시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신대한』을 발행하는 인쇄소에 압력을 가하여 결국 『신대한』은 1920년 1월 이후 폐간되고 말았다. 그러자 신채호는 다시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이후 단체는 베이징에서 박용만·신숙 등 임시정부 반대 세력들과 군사통일총성회에 참석하는 한편, 새로운 잡지의 창간에 노력하여 1920년 말경 김창숙·박승병 등과 『천고(天鼓)』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1921년 2월 단재는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 14명의 이름으로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로서는 커다란 위기였으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참가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신채호는 국민대표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창조파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졌다.

베이징에서 단재는 무장투쟁 단체를 직접 조직하거나 지도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0년에는 베이징의 무장투쟁론자들과 '제2회보합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간부를 맡아 무장투쟁을 펼치고자 하였다. 1924년 말경에는 베이징에서 이규준 등이 '다물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에게 선언문의 기초와 지도를 부탁하자, 이에 응하여 선언문을 작성해 주고 이회영·김창숙·류자명 등과 이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다물단은 강렬한 의열투쟁 단체로서, 이듬해 류자명의 주도로 의열단에 합류하였다. 단재의 다물단 관여는 역시 그의 무장투쟁론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단재의 임시정부 반대 투쟁은 처음에는 이승만과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단재가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은 임시정부의 존재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혁명선언」의 기초

1923년 1월, 단재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에서 결성된 대표적인 의열투쟁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은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이 낳은 가장 귀중한 문헌의 하나이자, 단재가 무정부주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단재의 「조선혁명선언」 기초와 관련하여 충주 출신인 류자명이라는 인물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그는 이미 상하이에서 단재의 강연을 들어 단재를 알게 되었고, 베이징에서도 함께 생활한 바 있으며, 단재를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류자명은 1921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탁월한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중, 단재를 상하이로 모시고 와서 의열단의 폭탄 제조 과정과 폭파 시험을 직접 보여주었고 여관에서 함께 지내며 「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을 지원하였다.

단재가 의열단과 관계를 맺은 것은 의열단이 1920년 가을 무렵 베이징으로 옮겨와서 임시정부 반대 세력에 동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김원봉은 단재가 주도하였던 「성토문」에 서명한 바 있었기 때문에 단재와 김원봉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 단재는 직접 의열단에 가입하거나 참가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깊이 관여한 흔적이 보인다. 즉, 그는 김성숙을 의열단에 추천하여 선전부장이 되게 한 바 있고, 김창숙과 함께 나석주 의거에 관여하여 그에게 폭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朝鮮革命宣言

朝鮮革命宣言

強盜日本이 우리의國號을밧이하며 우리의政權을밧았으며 우리의生存의必要條件을다剝奪하였다 經濟의生命인山林、川澤、鐵道、礦山、漁場……乃至小工業原料까지 다 밧았어 一切의生産機關을 밧아버리며 목기모음고 土地稅、家屋稅、人口稅、家畜稅、百一稅、地方稅、酒草稅、肥料稅、種子稅、營業稅、積蓄稅、所得稅……其他各種雜稅가 逐日增加하여 血液은 乾은 대로 다 밧아가고 如干商家는 日本의 製造品을 朝鮮人에게 媒介하는 中間人이 되야 사자資本集

朝鮮革命宣言

一

단체가 집필한 「조선혁명선언」
최남선의 「3·1독립선언서」, 한용운의 「조선독립 이유의 서」와 함께
뛰어난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혁명선언」은 이같은 배경 하에서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위치에 있던 단재가 작성한 것이었다. 1개월이 넘는 노력 끝에 완성된 「조선혁명선언」은 즉각 인쇄하여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배포되었다. 단재의 힘이 넘치는 문장은 단원들은 물론 모든 읽는 이들을 감격시켰다. 결국 「조선혁명선언」은 독립운동 단체로서 의열단의 위상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열단이 나아갈 투쟁 목표와 방향을 올바르게 일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체포와 순국

단재는 1923년 「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을 전후한 시기에 무정부주의를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무정부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단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배격하고 강력한 독립투쟁을 벌이기 위해 이 이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재는 그보다 훨씬 이전 국내에서 활동하던 1905년경 무정부주의를 접했다. 실제로 단재 자신도 자신이 무정부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내에서 황성신문사에 있을 때 일본인이 지은 무정부주의 관련 저술을 읽은 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신채호가 언제부터 무정부주의운동의 전면에 나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924년 베이징에서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 무정부주의자인 이회영·유자명 등 동지들과 어울리고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과 접촉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6년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이라는 조직의 준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정부주의 단체에 참여하였다. 이어 1927년 9월 베이징에서 중국·조선·일본·타이완·월남·인도 등 6개국 대표 120여명이 모여 '무정부주의동방연맹'을 조직할 때, 한국인 대표로서 참가하였다. 또한 그는 1928년 4월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베이징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하였다. 그가 1928년에 쓴 「선언문」은 이 회의의 선언문으로, 무산 민중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고 만 동방의 민중이 급속도로 혁명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를 포함한 무정부주의자들은 이 회의에서 선전기관을 설립할 것과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제조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단체에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단체는 임병문이라는 타이완인 무정부주의자와 협의하여 외국 환어음을 위조 인쇄하여 일본과 타이완 등으로 보낸 후 이를 찾아 자금으로 쓰기로 하였다. 단체는 타이완 지역을 담당하고, 1928년 5월 8일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찾기 위해 타이완의 지룽항에 도착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곳 경찰에게 붙잡혀 일제에 넘겨지고 말았다.

단체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당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정부주의운동이 단순히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

배라는 현실적 모순을 깨버리기 위한 실천적이고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외국 환어음을 위조한 것이 사기행위가 아니냐며 죄를 따지려는 일본인 재판관에게 자신은 양심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결국 단재는 1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휘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1936년 2월 18일, 단재는 옥중에서 뇌일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휘순의 2월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는 보통이었다. 형무소 당국은 하는 수 없이 국내에 있던 가족에게 신채호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보로 알렸다. 전보를 받은 부인 박자혜 여사와 아들 신수범, 친구 서세충이 휘순으로 달려갔다. 단재는 의식은 없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가족들은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면회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2월 21일 오후 4시경,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의 독방에서 단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향년 57세요, 망명길에 나선지 26년만의 일이었다. 장엄한 독립운동가 단재의 최후는 그렇게 오고 말았다.

‘죽어서도 사람’ 인 단재 신채호

단재의 서거 이후 많은 인사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글은 단재가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홍명희의 「곡단재」이다. 홍명희는 이 글에서 ‘살아서 귀신이 되는 사람이 허다한데 단재는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신채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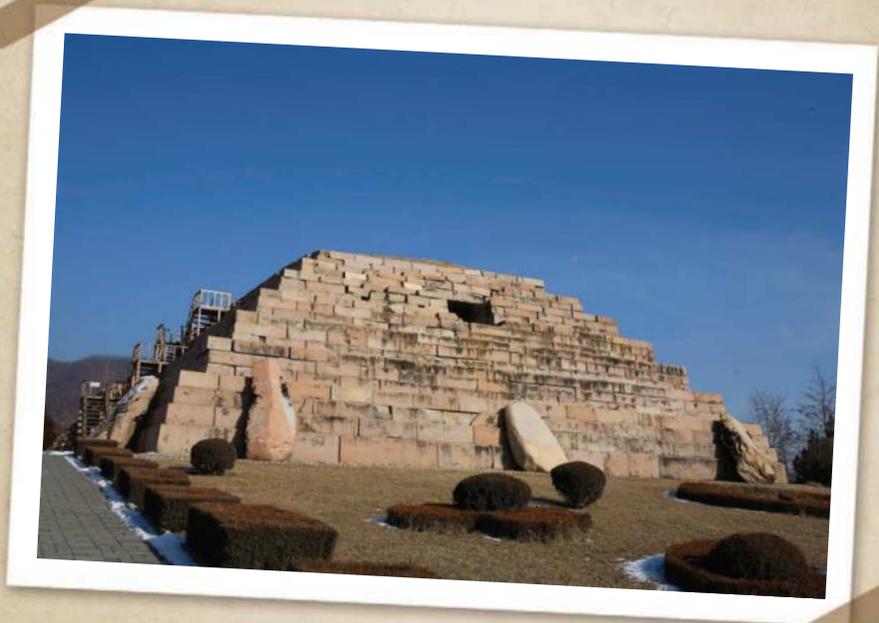
단재는 생전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화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괴팍스럽고 고집스런 성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베이징에서 단재를 만나 친하게 된 홍명희는 이와 관련한 회고도 남겼다. 그는 단재가 남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높으나 정열이 있어 좋고, 행동에 간사한 피가 적어서 좋다고 하였다. 또한 ‘단재가 고집 세고 괴벽스럽다고 홍보듯 변보듯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단재의 인물을 잘 알면 고집이 맘에 거슬리지 않고 괴벽이 눈에 거칠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은 단재가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였으나 사리에는 능통하였다고 하며, 단재더러 ‘불통’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재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시적 변통에만 능한 자들로 오히려 그들이 불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단재의 일화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 수범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서 생활이 매우 곤궁하였던 단재는 허는 수 없이 부인 박자혜와 어린 아들 수범을 국내로 들여보냈다. 단재가 옥중에 있을 때 그의 부인과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이운

경이란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의 신문사로 원고를 보내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로 처자식의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홍명희에게 편지를 보내 틈을 내어 수범을 돌려주기를 부탁했고, 감옥으로 자신을 면회 온 사람에게도 수범의 부탁을 잊지 않았다. 한번은 기자가 감옥으로 찾아가 단재를 면회하였는데, 그는 수범의 교육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옥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아주 단념하였다며 수범에 대한 애뜻한 아버지의 정을 보였다. 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투쟁한 혁명적 항일투사였던 단재, 그도 눈물이 있는 인간이기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 없었다.



환도산성의 전형적인 고구려 성벽



지안의 장수왕릉

No.3 역사

절망과 저항의
시대 역사가,
단지 신채호의
역사인식

허원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절망과 저항의 시대역사가, 단재 신채호의 역사인식

올바른 역사인식의 의미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의 한 선비가 수레를 타고 수도로 가다 으스스한 산속에서 산적들을 만났다. 한 산적이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멈춰라. 어딜 가는 거야” 선비는 덜덜 떨렸지만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나말인가. 지금 수도로 가는 길이지.” “몸에 있는 건 죄다 내려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목이 성하지 못할테니”

선비는 수레에서 내려와 산적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물건이 탐나서 그런다면 모두 줄테니 가져가게. 하지만 속잠방이만은 남겨 주게. 발가벗고 갈수는 없지 않나” 선비는 속잠방이 하나만 걸친 채 수레와 물건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유유히 모퉁이 길로 사라져 갔다.

너무나 예상 밖의 태연한 모습에 놀란 것은 산적들이었다. 산적들이 선비 뒤를 쫓아가 물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 그렇게 홀랑 털렸는데 어찌 그리 태연한 얼굴로 갈 수 있단 말이요”

“으응 내 표정 때문에 그러는가. 하지만 생각들을 해보게. 재물이란 본래 사람이 살기위해 생겨난 것인데 재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야 본말이 전도되는게 아닌가”

산적들은 선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한 산적이 외쳤다. “저놈은 틀림없이 큰 인물이야. 수도로 간다고 했으니 필시 벼슬하러 가는 길일거야.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포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테니 저놈을 지금 당장 처치해 버리는게 좋겠어” 산적들은 옹다거니 맛장구를 치면서 선비의 뒤를 쫓아가 처치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어떤 사내가 산길을 가다가 다시 그 산적들에게 붙들렸다. 이 사내는 크게 울면서 소리쳤다. “나우리들 뺏으신 물건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돌려주십시오.” 이 사내는 선비가 군말

없이 태연하게 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떨면서 크게 우는 시
늬를 계속하였다.

“이놈 가련해서 목숨은 살려줬더니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서 귀찮게 해. 이런
놈을 그대로 뒀다간 우리까지 포졸들에게 잡히겠어. 아예 싹 없애버려.” 그래
서 그 사내도 목숨을 잃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 교훈은 산적의 포악함도 사내의 우둔함도 아닐
것입니다. 산적과 선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산적과 사내 사이에서 일어날 일
은 다를 것이 뻔합니다. 사내의 풍모나 언행은 선비같이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
한데도 사내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
은 채 산적과 선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선비 대신 자신을 끼워 넣고는
살길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역사상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역사
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온전
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상황 속에 선불리 자신을 집어넣게
되면 과거의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보다 못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실패한 역사
를 잘못 이해하면 개인에게는 죽음이요 민족과 국가에는 멸망이 옵니다. 과거
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민족일수록 그 실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단재선생의 역사연구과정과 저술들

단재선생은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던 한말이래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항일민족언론을 주도하며 빼앗긴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선생은 나라의 주권회복을 위한 애국심 배양에 역사인식이 가장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재선생은 역사서 저술에 심혈을 기울여 계몽적 성격의 역사전기물 뿐 아니라 한국 근대민족주의사학을 대표하는 걸출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단재선생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저술한 과정과 그 저술들을 시기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08년 선생은 자신이 논설주필로 있던 한말 대표적 민족정론지인『대한매일신보』에 사론적 성격을 띤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연재하고 그를 전후하여 계몽적 성격의 역사전기물인 『이태리건국 삼걸전』(1907년), 『을지문덕』(1908년), 『수군 제일 위인 이순신』(1908년), 『동국 거걸 최도통』(1909~1910년)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였습니다.

1910년 4월 나라가 망하기 직전 국외로 망명한 단재선생은 1914년, 만주로 이주한 동포의 초청으로 서간도 환인현 동창(東昌)학교에 가서 『조선사』란 역사책을 써서 동포들을 계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사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1년여를 이곳에 머무르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광개토태왕비와 장수왕릉 등 고구려 유적지와 발해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고대 사료의 부족을 유적답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915년 이후 단재선생은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언론활동을 하는 한편, 베이징 근처에 산재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유적답사를 하면서 우리 역사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부여족 국가인 단군조선의 역사서인 『조선상고문화사』(미완성)는 이 무렵인 191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종교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사와 함께 문화사 서술에 역점을 두고 특히 단군조선 전반기 천년의 정치, 문화를 당시 중국과 동양 각국의 문화의 원류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군시대부터 백제부흥운동까지 기술한 『조선사』(미완성)는 대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실증적 역사연구에 힘쓴 저작으로 1921년 이전에 총론을 제외한 대부분을 먼저 집필하고 총론은 1924년에 썼습니다.

뒤에 쓰여진 『조선사』는 단재선생이 1928년 타이완 지룽항에서 일본관헌에 체포되어 뤼순감옥에 갇혀있을 때인 1931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일보』에 먼저 연재되었습니다. 연재될 당시에는 단재선생이 처음 정한대로 『조선사』란 제목을 썼지만 제목과 달리 고대조선부터 백제부흥운동까지만 연재되어 해방 후인 1948년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 『조선상고사』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선상고문화사』는 『조선사』에 뒤이어 193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습니다.

1924년 단재선생은, 자신이 깊이 간여한 국민대표회의(1923년 1월~6월)가 실패로 끝나자 실의에 빠져 베이징교외의 사찰인 관인스(觀音寺)에서 약 6개월간 승려생활을 하면서 『전후 삼한고』와 『조선상고사』총론을 집필하여 『동아일보』등에 연재하였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이승만의 국제연맹위임통치 청원이나 상하이임시정부의 외교중시노선으로 인해 불거진 독립운동진영의 분열을

수습하고 상하이임시정부의 개편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1924년 가을 사찰에서 하산한 단재선생은 베이징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연구에 몰두하여 1924년 10월 말 「이두문 명사해석」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이어 1925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조선사 연구초’라는 제목으로 「고사상 동·서 양자가 바뀐 실증」, 「삼국지동이열전 교정」, 「평양패수고」를 연재하였습니다. 뒤이어 「전후 삼한고」와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란 글을 역시 『동아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이들 논문 6편은 단재선생이 뤼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1929년 벽초 홍명희 선생에 의해 『조선사연구초』란 제목으로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되었고 해방직후인 1946년 연학사에서 다시 간행되었습니다.

단재선생의 주요 역사저작과 그 내용

㉑ 『독사신론』(미완성) 1908년

이 글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0년 최남선이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잡지인 『소년』에 『국사사론(國史私論)』이란 이름으로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내 뿐 아니라 하와이 동포사회에서 발행되던 『신한국보』에도 연재된 (1910년 9월 ~ 1911년 1월)후 다시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1911년 6월) 국내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민족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민족적 주체성 규명에 역점을 둔 저술로 비록 사론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종래의 학설을 뒤집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학설들을 제시하여 근대 한국사학의 기틀을 만들고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단재선생은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언어와 종족과 국토를 중시하고 우리 고대사의 민족문제를 주족(主族)과 객족(客族)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족으로는 고대 동아시아의 강대한 문명국으로서 중국민족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과의 투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부여-고구려 계통의 종족을 설정하고, 그들이 토착종족을 정복하면서 고대국가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간 과정과 객족인 지나족, 선비족, 말갈족, 여진족과의 투쟁과정에서 진화해나간 모습을 규명코자 하였습니다.

부여족과 고구려족을 고대 우리민족의 주족으로 내세움에 따라 민족의 구성요소인 국토문제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만주지역이 우리 국토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고대사의 주된 무대는 자연히 한반도에서 만주대륙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재선생이 발해를 우리역사에 포함시켜 발해가 멸망하기 전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초기를 남북 '양국시대'로 규정하는 독창적인 역사이론을 내놓은 것도 위와 같은 역사관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춘추의 삼국통일이나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요동과 만주를 다시 회복코자 했던 고려의 최영장군(최도통)은 한국역사상의 삼걸, 즉 세 영웅의 한사람으로 추앙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주에 대한 단재선생의 생각은 단지 우리 고대사의 무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사신론』을 쓸 무렵 이미 단재선생은, 만주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에게, 만주가 우리 영토의 일부임을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민족문화를 간직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몽하기도 하였습니다.

**02 『이태리 건국 삼걸전』 1907년, 『을지문덕』 1908년,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 1908년,
『동국거결최도통』 1909~1910년**

단재선생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전통시대 역사서 일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은 대부분 정치사 중심인데다 여러 왕조를 관통하는 통사가 아닌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단대사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강해 주체적인 역사기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전통시대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조선사다운 조선사를 쓰지 못했다고 단재선생은 비판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기록에 대해서도 중국민족 특유의 자존성이나 근대 일본의 야욕으로 인해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기술하였다고 통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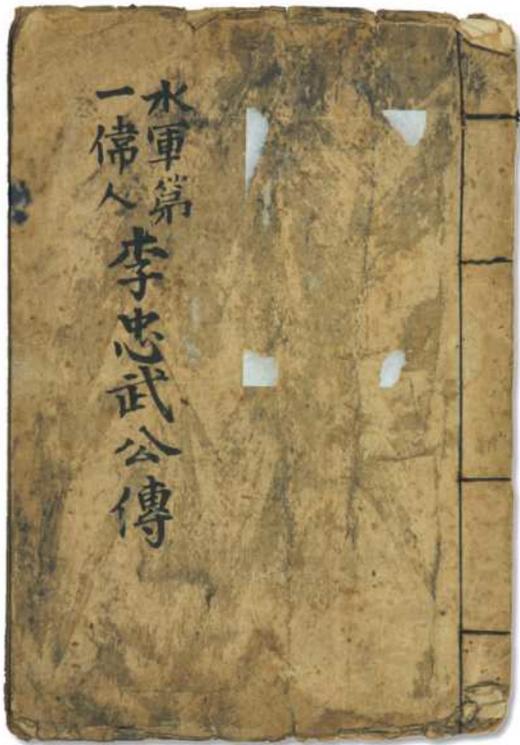
단재선생의 비판은 전통역사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말 당시 근대적 교육

제도 아래서 새로 등장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민족주체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고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용 도서가 전무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부(오늘날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1909)라는 논설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심 배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역사의식인데도 자기 민족의 기원과 발전과정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중화사상에 젖어있거나 일본의 왜곡된 학설을 수용하여 주체적인 역사기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망국적인 처사라고 질책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한말의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구국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열망한 나머지 고대와 중세 우리나라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까지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민족주의 사상을 계몽하려 하였습니다.

청말의 개혁사상가인 량치차오의 저술을 번역·서술한 『이태리건국삼걸전』은 19C 중반 이탈리아의 민족국가 통일과정에서 활약한 마찌니, 가리발디, 카부르라는 세 영웅이 그들의 탁월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전기물입니다. 단재선생은 19C 중반 당시 이탈리아의 역사적 조건이 20C 초 식민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고 시기적 차이도 크지 않아 이탈리아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국난극복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수군제일위인이순신전』

단체가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5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재한 것을 모아 1908년(융희2년) 9월 10일 120쪽 분량으로 등사하여 펴낸 단행본

또한 단재선생은 이들 세 영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탈리아 전국민 가운데 대표자일 따름이고 그들 아래는 무명의 마찌니 무명의 가리발디 무명의 카부르가 수백 수천명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자신이 이 책을 소개한 것은 이를 읽고 대한중흥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 삼걸 아니 삼십걸 삼백 걸전을 다시 쓰고 싶은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고 피끓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을지문덕』에서 단재선생은 을지문덕장군이 전술과 전략에 능하고 용맹했을 뿐 아니라 외교에도 능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강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험한 일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장군의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토대가 되어 군신(君臣)이 하나되어 내정을 다지고 외부의 모욕을 물리쳤으며 작은 규모의 국토와 백성으로 강국의 군대와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큰 나라인 수나라와 싸워서도 승리하여 한민족의 대외투쟁에 빛나는 공적을 남긴 영웅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동국거걸최도통』에서 단재선생은 고려말 원·명 교체기라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요동과 만주정벌을 추진하고 고려에 침입한 홍건적과 왜구를 격파하여 국위를 선양한 업적을 들어 최도통 즉 최영장군을 우리나라의 탁월한 애국 무장으로 꼽았습니다.

『수군제일위인이순신』에서는 세계역사상 이순신장군과 견줄만한 위대한 장군으로 1805년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트라팔가해전에서 격파한 영국의 넬슨제독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취약한 군비와 병력으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의 전략 전술과 공적이 더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

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은 나라의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애석해 하였습니다.

단재선생뿐만 아니라 안창호 등 한말의 다른 계몽운동가들도 사대주의 역사관으로 인해 매몰된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명예스런 성공의 역사와 선인들의 위대한 사업, 그리고 옛 사람의 모험적 자취를 통해 제2의 을지문덕, 제2의 최영, 제2의 이순신을 불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결국 한말 단재선생이 펴낸 영웅과 위인들의 전기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대 영웅과 위인들의 행적을 학습하여 무수한 신 영웅이 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계몽하기 위한 교육자료였습니다.

09 『조선상고사』(미완성) 1910년대 말~1920년대 초반 집필

단군시대로부터 백제의 부흥운동까지 서술된 미완성 저작인 『조선상고사』는 총론을 제외한 부분은 1921년 이전에 씌여 졌고 총론은 1924년에 씌여 졌습니다.

『조선상고사』에서 단재선생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체계는 단군조선의 역사가 부여와 고구려로 계승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는 『독사신론』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주족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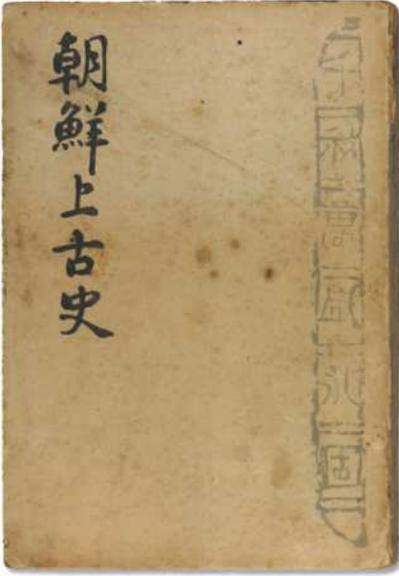
단재선생은 『조선상고사』총론에서 우리나라 역사학을 개관하고 자신의 역사 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우리민족의 대외경쟁력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대외경쟁력이 강했던 고구려를 중시하였고 한반도 안에서 이뤄진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유신의 음모라고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단재선생이 고구려의 대외 점령과 지배등 우리나라 상고사의 주체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자주의 의지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재선생의 역사연구는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을 극복하고 역사의 자주독립성 확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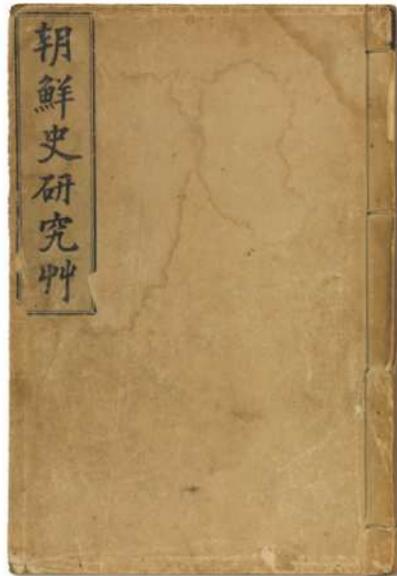
단재선생의 역사연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민족적 편파성을 띄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통적인 역사학이나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던 한계로 미루어 볼 때 단재선생이 근대 민족주의사학 이론을 토대로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민족사를 개척해 나간 공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04 『조선사연구초』 1924 ~ 1925년 집필

「전후삼한고」에서 단재선생은 부여, 고구려, 예, 옥저, 백제, 신라가 동일한 언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관제와 풍속이 유사하여 한민족의 상고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지역들을 우리 민족의 회복대상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역사상 일천년래의 제일대사건」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가 김부식의 천도반대에 패배당한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전통사상인 낭가 사상이 중국의 유가사상에 패배하고, 국풍파가 한학파에 패배하며, 독립당이 사대당에 패배하고, 진취사상이 보수사상에 패배한 크나큰 변화의 분수령으로 보았습니다.

단체선생은 민족의 성쇠는 민족의 사상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달렸고 사상의 지향은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근세에 정치, 종교, 풍속, 학술 등 각 방면에서 사대주의적 노예성을 드러낸 것은 바로 진취적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묘청의 서경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므로 묘청의 서경천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조선역사 일천년간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를 좌절시키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등 사대주의적 역사학자나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활약시기를 삼국시대로 보고 그 활동무대를 한반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체 선생은 삼국 이전의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활약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만주와 중국 동부의 산둥, 안후이성 지방까지 고대 우리 민족인 부여족의 활동 무대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사연구초』에 수록된 6편의 논문 중 치밀한 문헌고증이 가장 돋보이는 「삼국지동이열전 교정」에서 단체선생은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의 「조

선열전』은 중국유적(流賊)들의 침략사이고, 『남북사』·『수서』·『당서』의 「동이 열전』은 한족의 대외경쟁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중국 역사가들이 그들의 자존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우리나라의 인명, 지명, 풍속 등을 잘 몰라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조선의 옛 역사서들이 거의 없어진 까닭에 유명해진 것이고 실은 11C 송(宋)나라의 왕흠약(王欽若) 등이 중국의 각종사료를 모아 중국의 고대부터 당말오대까지의 정치사적을 정리한 『책부원구(冊府元龜)』에 크게 의존하여 씌여진 사대성이 농후한 역사서로 문화사나 정치사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혹평하였습니다. 일연이 쓴 『삼국유사』가 전해지는 것도 『삼국사기』를 모방하여 사대주의사관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재선생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안정복(安鼎福)과 한백겸(韓百謙)등 실학자들의 역사저술에 대해서도, 정밀한 고증을 통해 김부식의 오류를 많이 찾아내기는 하였지만 중국역사서에 대한 과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비판적 수용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은 1920년대 성숙기 단재사학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당시까지의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수준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900년대 후반부터 20대의 청년단체는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애국자와 애국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며 피끓는 문장으로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단재선생은 1910년 4월 국외 망명길에 올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나서도 험난한 여건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복원하고 우리역사의 진정한 영웅을 발굴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해 한시라도 역사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연구와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산 그리고 그를 통한 애국심의 고양은 민족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애국자가 있는 나라는 약해도 반드시 강해지고 쇠퇴해도 반드시 흥성할 것이며 죽게 되었어도 반드시 생존한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애국자가 있고 없고에 달렸다는 것이 선생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선생은, 애국이란 나라 밖에 딴 사랑의 대상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도 사랑하며 술도 사랑하면 술로 나라를 잊을 때가 있고 나라도 사랑하며 미인도 사랑하면 미인으로 인해 나라를 잊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무릇 애국자라는 것은 그 뼈와 피 모든 것이 다 애국의 조직물이고 누울 때의 생각도 앓을 때의 생각도 노래도 휘파람도 웃음도 울음도 모두 다 나라여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의 화신이 바로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장군과 같은 애국 영웅이고 이들 영웅은 한 나라의 민족과 강토를 지키는 보호자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영웅들의 빛나는 역사를 써서 이를 읽은 국민 가운데 미래의 영웅이 나타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단재선생은 우리 2천만 민족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쟁쟁거리게 하고 눈에 애국이란 글발이 삼삼거리게 하며 손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역사를 논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천만 동포의 핏방울, 땀방울까지 나라를 위해 뜨겁게 흘리게 하는 것은 오직 역사로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단재선생은 기존의 사대주의나 식민주의 역사서술은 우리역사에서 비범한 인물들의 실패의 역사를 비웃거나 지워버리고 소인배들의 성공의 역사만 찬미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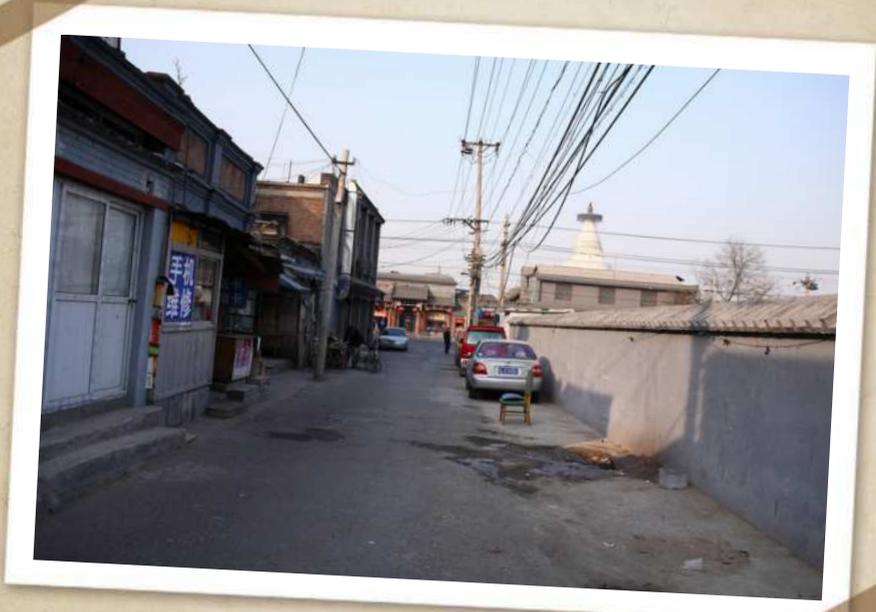
단재선생이 생각하기에 역사상 성공자는 약아서 쉽고 만만한 일만 붙들어서 성공했지만 실패자는 담력과 관찰력과 의기가 남보다 백배나 강해 남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기 마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에 맞닥뜨리면 불과 싸우고 물에 맞닥뜨리면 물과 싸우며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총알과 겨루는 인물들로 10분의 9가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비유하면 실패자는 백보나 되는 큰물을 건너뛰다 실패한 것이고 성공자는 일보의 물을

건너뛰어 성공한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역사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위험한 대목은 피해가면서 작은 성공을 거둔 자들을 단재선생은 '쥐새끼' 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행적만 기록한 대표적 역사저술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꼽고 그 폐해를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진정한 애국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득실거리게 된 것도 사대주의자들이 쓴 그 같은 역사의 악영향 때문이고 이러한 영향 아래서 머릿속에 나라라는 글자는 그림자도 없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올바른 역사를 읽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군조선이래 광활한 만주대륙을 무대로 활약했던 우리 민족의 웅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위기때마다 민족과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인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도 단재선생이 보기엔 분명 역사의 성공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식민지시대, 반도땅과 2천만 동포를 고스란히 일제의 손에 잃은 식민지 조선의 선비인 단재선생이 한 반도는 물론이고 이미 오래전에 남의 땅이 되어버린 만주까지 시야에 넣고 새로운 역사체계를 세우기 위해 쏟아 부은 피와 땀은 또 한사람의 위대한 실패자의 등장을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길 건너 바이타쓰(白塔寺)의 바이타가 보이는 진스광제후동

No.4 언론

단재 신채호의 해인 언론활동

김문중
청주대학교 강사, 언론학 박사



단재 신채호의 해외 언론활동

단재 신채호를 칭할 때에는 독립운동가, 문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아나키스트 등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서서 세수한’ 그의 일화를 생각하며 일제와의 일체 타협을 거부하고 민족적이며 애국적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로서의 단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이다. 단재는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 몰두하였으니 말이다. 국내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해외로 망명해서도 그랬으며, 더욱이 남의 나라 감옥에서도 단재는 오로지 독립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했다. 그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는 운동이라면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였다. 그래서 당시 중국내의 폭력적인 독립운동단체에는 단재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일제 당국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단재는 독립운동가에 앞서 언론인이었고,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중에도 언론의 중요

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한 언론인이었다. 그는 1905년 『황성신문(皇城新聞)』에서 시작하여 1921년 망명지 중국에서 『천고(天鼓)』라는 잡지를 발행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언론과 함께 지냈던 언론인이었다. 애국계몽시기나 독립운동시기나 단재는 언론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또는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주창하였던 전형적인 언론인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점은 일반인들과 청소년층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인으로서의 단재 신채호

단재가 언론계에 몸담은 것은 1905년 위암 장지연의 초청에 의해 『황성신문』의 논설기자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단재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신백우와 신규식 등과 함께 '산동학원'을 개설하여 계몽운동에 나서고 있었는데, 『황성신문』 발행의 책임자 장지연이 그를 서울로 초빙했던 것이다. 장지연은 단재가 독립협회 및 항일성토포문의 작성 등에서 보여준 애국계몽운동과 성균관에서 수학한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황성신문』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이후 단재는 『황성신문』의 지면을 통해 언론인으로 출발하여 평생 언론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첫 언론사 『황성신문』에서 단재가 일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장지

언이 이 신문에 발표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일제의 탄압을 받고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인으로서 이제 막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단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이나마 독자에게 큰 감명을 준 언론인 단재를 언론계에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즉 단재는 양기탁의 추천으로 영국사람 배설(裴說, Bethell)이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들어가게 된다. 신문의 발행인이 영국인이라 치외법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할 수 있었던 이 신문은 단재를 주필로 초빙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항일신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단재가 이 신문을 떠난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이었다.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항일운동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단재는 중국 망명을 결정하고 신문사의 일을 정리했던 것이다. 그 후 단재는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칭다오에서 열린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신민회 비밀회의에 참석하였다. 해외에서의 무장투쟁을 준비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압록강을 건넌 단재는 결국 살아서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러시아에서의 언론활동

칭다오에서 열린 신민회의 논의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자 단재는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다.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나라와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관계로 인해 그곳에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높아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을 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동포들을 위한 신문발간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를 통해 학문과 지식을 넓히고 실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족정신을 배양하는 애국계몽운동도 전개하였다.

1908년 순한글 석판인쇄로 탄생한 『해조신문(海朝新聞)』도 이러한 일환으로 나타나 국권의 회복을 창간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를 경성지사로 삼아 국내 배포를 시도했는데 항일적 논조로 인해 일제의 거센 탄압을 받고 폐간되었다. 이 일로 인해 일제는 이후 신문지법을 개정하여 해외 발행의 신문을 국내로 들여와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해조신문』이 폐간된 이후 등장한 『대동공보(大東共報)』도 국권회복과 배일사상을 강조한 신문으로 탄생하여 그곳 동포들의 애국정신 고양은 물론 끊임없이 국내로 반입시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섰다.

단체가 중국을 거쳐 들어간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황은 이와 같이 애국적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국내에서 뛰어난 필봉을 휘두르던 단체를 그곳의 지식인들이 언론계로 초빙한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단체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안 해외 여러 곳에서는 그를 신문사의 주필 등으로 초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단체는 그보다는 조국의 가까운 곳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를 원했다.

그런 그를 초빙한 신문사는 ‘청년권업회’가 발행한 『대양보(大洋報)』였다. 이 신문은 한글로 된 4면을 발행하였는데, 『대동공보』처럼 항일적 논조를 나타냈다. 이 신문사는 1911년 6월 단재를 주필로 선임하여 신문의 논설을 맡겼다. 그러나 신문사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단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단재는 활동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도 했다. 그러나 여러 동지의 만류와 독립운동이라는 대의를 위해 남기로 하고, ‘권업회’라는 단체에서 서적부장직을 수행했고, 이 단체가 기관지로 『권업신문(勸業新聞)』을 발행하자 신문부 부장 겸 주필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이 신문은 1주일에 한 번 순한글로 간행되었고 기사의 내용은 논설, 각국통신, 전보, 본국통신, 잡보, 단평, 별보, 광고, 기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종의 독자투고란인 기서로 이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한문글자를 섞지 말고 순전히 국문으로 할 것과 정자로 명백하고 똑똑하게 쓰며 국문시는 지면에 반영할 수 있으나 한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문사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강조한 점이다. 단재는 청년시절 고향에서 한문 보다는 한글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 단재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신문은 필자였는데, 활자를 이용하여 신문을 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지만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하고 결국은 등사관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이상설을 의장으로 하여 출범한 ‘권업회’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과 항일운동을 목표로 하여 탄생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목적이 더 중요했다. 따

라서 이들이 발행한 『권업신문』도 이러한 목적 하에 발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단재가 가장 적임자였다.

신문의 논설을 담당한 단재는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우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글을 발표했다. 즉 단재는 『권업신문』 1912년 6월 23일자 제8호에 ‘국수주의와 해외동포’ 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나라있는 민족이라도 국수주의가 없으면 망하나 나라 없는 민족이라도 국수주의가 있으면 흥하나니 이는 동서양역사에 상고함에 털끝만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서 국수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말하자면 곧 내 나라의 좋은 것인데, 자세히 말하자면 곧 내 나라의 말 내 나라의 글 내 나라의 역사 내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과 습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단재는 비록 현재의 우리 민족이 나라를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기는 했으나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것에 관한 기억을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단재는 빼앗긴 나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되찾아 오는 방법을 원했다. 나라를 잃은 지 두 해가 흐른 날에 단재가 그 당시를 떠올리며 쓴 ‘이날(是日)’은 단재의 이러한 비장한 심정이 잘 드러나는 글로 그 감정을 시의 형식으로 나타냈다. 그는 이 글에서 1910년 8월 29일 즉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치를 당하던 그 날을 생각하며 “몸을 바쳐 우리가 지나 깨나 사나 죽더라도 이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날이 우리의 기념할 날 되기까지 힘을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재의 생각과는 달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한인사회 갈등은 매우 깊었다. 단재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이미 『대양보』에서 겪었다. 그래서 그는 동포사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1912년 7월 28일자에 ‘동포사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논설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아무리 내 마음에 합치 않는 동포일지라도 동포의 의를 생각하여 동포로 사랑하고 분이 있더라도 이를 참으며 미움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며 책망할 일이 있거든 책망은 할지언정 뒤에서 모해말며 경쟁할 일이 있거든 경쟁은 할지언정 속으로 저희 말고 더욱 내 집의 흥을 남에게 전치 말며 내 형제의 시비를 담 넘어가게 말고 동포를 대하거든 먼저 사랑 두 자를 읽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단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포사이의 대립은 점점 더 깊어갔고, 이로 인해 단재는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중지하고 중국으로 이동한다.

상하이에서의 언론활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단재가 활동무대를 옮긴 것은 1913년 8월경이었다. 당시 단재는 신규식의 초대를 받고 상하이로 갔던 것인데, 몸은 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래도 단재는 상하이에서 박은식, 문일평, 홍명희 등과 교류하는 한편 박은식과 신규식이 창립한 ‘동제사’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4년경에는 윤세복 등의 초청으로 만주의 지린성으로 이동했다. 윤세복은 1910년 이후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지역으로 이주하고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

람으로 후에는 대중교의 교주로 취임하여 더욱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단재는 그곳에 있으면서 만주지역에 펼쳐져 있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고, 백두산에도 올라 민족의 영지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단재에게 새로운 민족사적 사고를 갖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집안(지안)현의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단재가 말한 것은 이 답사가 그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를 가르쳐 준다. 이 여정을 통해 민족사 연구에 대한 실증적 토대를 확인한 단재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한동안 조선사의 집필에 몰두한다. 가난과 병환이 그의 연구를 방해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중화보』와 『북경일보』 등의 유명한 중국신문에도 글을 기고하면서 글을 써 나갔다.

단재가 베이징의 생활을 정리하고 상하이로 건너간 것은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후였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여러 독립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나서고 있었다. 단재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임되어 임시정부 수립 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추대하자 그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위임통치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단재는 “이승만이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단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승만은 다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자 단재는 곧 바로 임시정부와 단절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의 독립노선에 대한 비판에 나서게 된다.

단체는 임시정부의 독립방안에 뚜렷한 반대를 표명하며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대한(新大韓)』이었다. 1919년 10월 28일 창간된 순한글의 이 신문은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논조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즉 독립운동에 있어 준비론과 외교론을 비판하고 최선의 대안은 무장투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두 신문간의 논쟁이 치열해 지자 임시정부의 이동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화해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신규식의 지원을 받은 이 신문은 구성원으로 주필을 맡은 단체를 비롯하여 김두봉, 한위건 등이 있었다. 또한 이 신문은 신대한동맹단의 기관지 역할도 했는데, 이 단체는 단원 약 40명 정도가 활동하는 과격한 운동단체였다. 독립에 있어 무장투쟁을 증시하는 단체의 주장은 이 신문의 창간호에 잘 나타나 있다. 단체는 『신대한』 신문의 발행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태평양은 육지가 될지라도 우리가 일본은 잊지 말자. 삼천만의 해골을 태백산 같이 쌓을 지라도 일본과 싸우자는 정신을 가지고 본보가 출현되었노라.”

일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가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글이다. 또한 단체는 임시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일제로부터 참정권 획득이라는 자치론과 미국에 기대어 독립을 달성하려는 외교론 모두에게 오로지 일제라는 적을 파괴하는 것만이 완전한 독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이상의 국가보다 우선은 이상의 독립군을 제조할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단체의 이러한 무장투쟁론은 그 유명한 의열단선언인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훨씬

더 구체화된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박탈하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선언에서 단재는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외나무다리 위’ 에 선 까닭에 오로지 나아가야 할 길은 폭력 파괴의 길” 이라고 투쟁방법을 밝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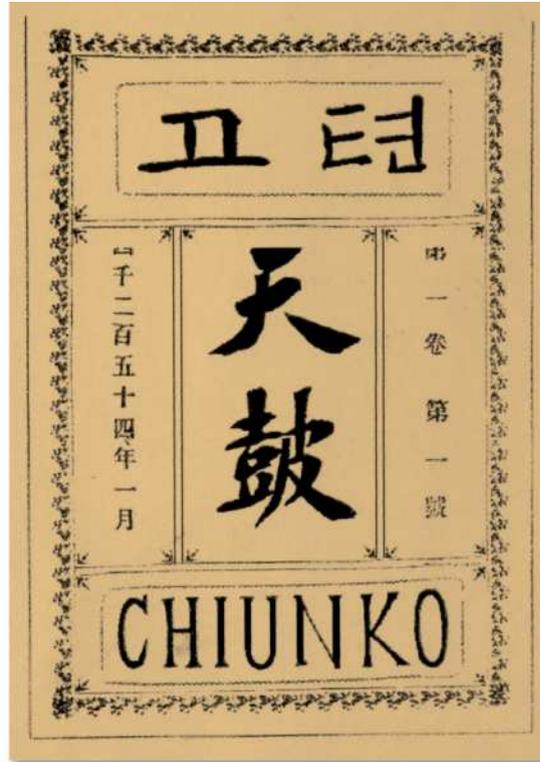
『독립신문』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신대한』은 1920년 들어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인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결과였는데, 이로 인해 2월경부터는 신문이 발행되지 못해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1920년 1월 23일 제18호가 종간호인 것으로 보인다. 단재가 『신대한』을 발행하면서 『독립신문』과 지상 논쟁을 벌였지만, 『신대한』의 종간 이후에는 글 발표의 공간으로 『독립신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열단장 김원봉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온 단재가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을 완성한 이후 9월 1일자 『독립신문』에 진공(震公)이라는 필명으로 ‘금일에 또 피난할 십승지(十勝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진공은 단재가 잡지 『천고』 등의 논설에서 많이 사용한 필명이다. 단재는 같은 필명으로 『독립신문』에 몇 개의 논설을 실었다. 그리고 단재는 시조도 지면에 실었는데, 이러한 점은 단재가 이 신문의 편집과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 『독립신문』의 사장과 주필직을 맡았던 이광수의 말을 빌면, 『독립신문』은 처음에 단재를 주필로 초빙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시 운동노선의 다름으로 인해 단재가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비록 단재가 『독립신문』과 노선에 따른 갈등을 일으켰지만, 천성이 언론인인 그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언론으로 『독립신문』의 지면을 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에서의 잡지 『천고(天鼓)』 발행

단재가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20년 4월경부터이다. 상하이에서 발행하던 『신대한』이 인쇄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발행이 힘들어지자 무장투쟁의 독립노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박용만·고일청·김창식 등과 더불어 '제2회보합단'의 조직에 참여하여 내임장이라는 직책에 선임되기도 하였고, 김동만과 이시영 등과 함께 만주에 근거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에도 앞장섰다. 또한 '군사통일촉성회'를 조직하여 '베이징군사통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베이징에서의 바쁜 활동 중에서도 당시 단재에게 보다 뜻 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박자혜라는 여인과의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천고』라는 잡지의 발행이었다. 박자혜는 연진대학 의학과에 재학하던 학생으로 국내에서 1919년 간우회 사건을 일으켜 중국에 망명해 있던 중이었다. 이 둘에게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우당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었다. 단재의 이 결혼과 신혼생활은 그가 평생 동안 맞본 행복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들도 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꿈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극심한 가난으



단체가 심산 김창숙 등과 함께 발행한 한문잡지 『천고』. 우리나라의 고대사연구와 항일투쟁에 관한 내용으로 1921년 1호부터 7호까지 발행하였다.

로 인해 단재는 부인과 아들을 1922년 국내로 들여보내게 된다. 그 후 단재가 살아 있는 동안 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일은 1920년 박승병, 김창숙 등과 함께 시작해서 드디어 1921년 1월에 창간호를 간행한 잡지의 발행작업이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볼 수 있도록 한문으로 발행한 잡지 『천고』에는 중국인에게 합심하여 항일운동에 나서자고 하는 내용과 우리나라의 고대사연구에 관한 글을 실었다. 이 잡지의 창간호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맨 처음에 신년축사와 창간사가 실려 있고, 본문에는 '대조선군정서가 왜병을 대파한 축사', '조선독립운동과 동양평화', '왜의 소위 친선이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의 말운이 이르렀다', '일본의 죄악과 무공덕을 논함', '천고와 신년', '고고편', '폴랜드 광복 약사', '중국친구가 보내온 두 책에 대한 소개', '대한독립군이 왜를 깨뜨린 것을 널리 알림', '강우규 선생 추도사', '전 황태자 암살음모 소식', '군정서의 전황', '양대전의 상보', '북간도전란 휘보', '내국소식', '해외소식' 등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재선생이 홀로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천고』가 추구한 발간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과 조선은 학정을 일삼는 일제를 앞에 두고 한 배를 탄 동지적 관계임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일제가 왜곡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잡아 올바른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천고』는 단재가 우리나라의 고대사연

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단체가 이 잡지의 이름을 『천고』 즉 ‘하늘북’이라고 지은 까닭을 그가 창간호에 기고한 ‘천고신년신간축(天鼓新年新刊祝)’이라는 글을 읽어보며 음미해보자.

한 번 북을 두드리니 그 소리 우레와 같고
두 번 북을 두드리니 그 기세 산처럼 높네
세 번 네 번 두드리니 의로운 선비 구름처럼 모이고
다섯 여섯 번 두드리니 도둑의 머리가
낙엽처럼 떨어지네
왜놈들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빛남을 되돌려
우리 산하를 거둬 정리하면
하늘북을 울리는 직분을 여기에서 마치리라

하늘북을 두드리 무장독립투쟁에 나설 동포들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강점하고 있는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단체의 굳은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글이 아닐 수 없다.

맺는말

단재는 잡지 『천고』를 거의 마지막으로 하여 직접 글을 쓰고 발행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끝마쳤다. 물론 그렇다고 『시대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글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언론의 발행을 책임지는 활동정도만을 중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신 단재는 그보다 직접행동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말년에 그가 참여한 무정부주의동방연맹은 말 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단체였다. 누군가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단재는 실천에 옮겼다.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비켜가지 않았다. 자신이 글로 주장했던 것을 피해가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결국 단재는 체포되어 뤼순감옥에서 순국했다.

일제강점기에 단재 신채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선구자도 드물다. 그래서 시인 도중환은 단재를 일러 ‘꽃꽂한 당신’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단재는 궁핍한 가난 속에서도 대의에 따라 글을 쓴 참지식인이고 그 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참언론인이었다. 필자와의 상의 없이 글자 한 자를 바꿔버린 중국신문 『중화보』의 오만함을 질타하며 기고를 중단한 점이나 식민지 하에서 일제의 연호를 사용하는 신문에는 글을 보낼 수 없다며 기고를 거부한 점은 비굴하지 않고 진정으로 당당한 언론인 단재의 모습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무엇보다도 평생을 언론과 함께 산 언론인이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틈만 나면 언론매체를 발행하거나 이용하여 민족정신과 나라의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의 글에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 치의 흔들림이 없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도가 아니면 절대 가지 않았고, 불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올곧은 정신은 작은 이익에도 쉽게 붓을 꺾는 현대의 일부 언론과 언론인에게 좋은 거울이요 표상이다.

이날

단국 개국 사천이백사십오년 팔월 이십구일

이날은 어떠한 날이오

사천년 역사가 끊어진 날이오

삼천리 강토가 없어진 날이오

이천만 동포가 노예된 날이오

오백년 종사가 멸망한 날이오

세계 만국에 절교(絶交)된 날이오

천지일월이 무광한 날이오

산천초목이 슬퍼한 날이오

금수어별이 눈물 흘린 날이오

애국지사가 통곡한 날이오

우리의 신성한 민속이 망한 날이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날이오

우리의 재산을 잃은 날이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날이오
우리의 신체가 죽은 날이오
우리의 명예가 없는 날이오
우리의 입이 있어도 말 못할 날이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날이오
손이 있어도 쓰지 못할 날이오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할 날이오
우리의 조상은 땅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날이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희망 없는 날이오
우리는 살고저 하여도 살곳이 없는 날이오
우리가 죽고자 한들 묻을 땅이 없는 날이오

슬프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여
이날 이날을 기억할 날이오
지금 삼년전 이날에
원수의 임금 목인이 사내정의를
우리 대만에 파송하여
수만명 왜병을
방방곡곡에 배치하고
매국적 이완용 송병준 등을 농락하여
합병조약을 체결한 날이오

이날 이날은
저 조그마한 섬 중에 있던 하이족(蝦夷族)으로
별거벗고 금수와 같이 행동하던
저 야만과 원수되던 날이오
이 민족 저 민족이 합하여
명색이 국가로 수천년도 못된
저 무도한 왜국에게
우리 사천년된 민족이 멸망받은 날이오

애통하다 우리 동포여
이날 이날에
어떤 참혹한 형편을 당하였느뇨
우리의 황실은 왜왕의 신첩(臣妾)이 되었고
우리의 민족은 왜인의 노복이 된 날이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고 들을 지어다
우리의 조국을 붙들고저 하다가
대마도에 가두어 만리고도에 원혼이 된
최면암(崔勉菴)선생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나라 없어지는 날 방성대곡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한칼로 목을 질러
국은을 갓고저 한 민충정(閔忠正)공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국권을 회복코자하여

만국평화회에 가서 더운 피를 뿌려
세계에 빛내게 한 리준(李儁)씨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원수를 활빈 정거장에서 단총 일발에
거꾸러뜨리고 여순구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안중근(安重根)씨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국록을 먹고 원수를 돕는 스티븐스(須知分)를
상향 정거장에 더러운 피를 뿌리게 하고
지금 옥중에 있는 장인환(張仁煥)씨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매국적을 한양 대로상에서
형경의 비수가 한 번 번쩍한 결과로
원수의 손에 원통한 혼이 된 리재명(李在明)씨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후사를 부탁하고
재산을 분급하여 공익사업에 부치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자결한 이범진(李範晉)의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국가를 회복하며 원수를 멸망코자하여
영웅렬사가 의병을 모집하고 각처에서 일어나
독립기를 들다가도 원수에게 도륙을 당하여
보행 망명 도수하여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며
와신상담하는 일도 이날이오
우리 조국의 청년 학도는 창가 체조로 애국심을
분발하며 신체를 건전케 하다가도 원수의 손에서
징역 받는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청년이 해외로 나오다가 종로에서
원수의 손에 잡혀 방포 일성에 무주고혼이
되는 일도 이날이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녀가 되고저 하여도
저 원수는 세계의 공법을 무시하고
종교를 박멸하여 신자를 포박하고
암살인자 음모사건이라 거짓말로 죄목을
만들어 공판하기 전에 옥중에서 죽이는 일도
이날이오

우리 내지의 동포는 혼인잔치에도 세전이오
생남하는 때에도 세전이오 소와 말고기까지라도
다 세전이오 여러 가지 세전으로 우리 민족은
핏줄이 말라 살수 없는 일도 이날이오

슬프다 우리 동포여
이날 이날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우리의 허물인가 원수의 죄악인가
이것을 공판하여 불쌍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권능은
다만 지공무사한 하늘에 계신

상제시여 불 지어다

원수의 나라는 점점 쇠망한 형편에
빠지는 것도 이날이오
마귀를 숭배하며 도덕을 무시하고
밤낮 사람 죽이는 재주만 가르치는 일도 이날이오
외국국채가 수십억이 되어 보상할 방침이
없음으로 국가의 철로와 항구를
전당 잡힌 일도 이날이오
부녀를 외국에 파송하여 매음(賣淫)으로
생활코자하는 일도 이날이오
저의 귀족들은 음란사치가 극도에 달하여
평민은 살수가 없음으로 사회주의자가
생긴 일도 이날이오
저의 임금 목인이하 황족을 폭발약으로
몰살케하고 공화국을 설립코자 하려던
행덕(幸德) 등 수십 명이 죽은 일도 이날이오
저의 정치의 부패와 인민의 불평은 날로
심한 일도 이날이라

우리 동포여

이날 이날에

원수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생각할 때에
슬픈 마음도 이날이오
기쁜 마음도 이날이오
희망될 일도 이날이오

리순신(李舜臣)씨의 철갑선으로
왜적을 함몰한 일도 이날이오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외적을
격파한 일도 이날이오
와싱턴(華盛頓)의 독립기를
들일도 이날이오
나폴레옹(拿巴崙)의 혁명을
폭동할 일도 이날이오

우리 동포여
이날 이날에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뇌성벽력이 머리를 눌러도 굴치 말고
천병만마가 당전하여도 퇴보 말고
용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할 날이오

우리 동포여
잊지 못할 날이 이날이니
이날이 지나고 그날이 당하며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웃음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쾌락이 될
이날을 잊지 말고
금년 이날에도 이 생각이오
십년 백년까지라도 이날에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는 동포들아
우리가 신성한 민족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바쳐 우리가 지나 깨나
사나 죽더라도 이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날이 우리의 기념할 날
되기까지 힘쓸지어다
이날에 이말로 우리 대한 제국
이천만 동포 형제 자매에게 고하며
특별히 아청 영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여
이날에 이 생각으로
모세 선지자의 본을 받을 지어다

이스라엘 민족 사십만을 애굽에 거느리고
가나안 복지로 가던 이날이 되며
항우(項羽)가 강동자제 7천으로
도강하던 이날이 될가
이날이 그날이 될까 그날이
이날이 될까 이날 이날



1955년에 간행한 단재의 저술 「을지문덕」 표지

No.5 문학

단재 신채호의 문학

김승환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단재 신채호의 문학

신채호의 문학과 그의 시대

단재 신채호를 문인 또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 신채호는 글도 많이 썼지만 독립운동가, 교육자, 역사학자, 언론인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신채호가 살았던 당시에는 전업 작가와 같은 개념이 없거나 적었다. 따라서 신채호를 지금과 같은 문인 또는 작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시와 소설 그리고 산문과 비평을 썼기 때문에 문인이나 작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예로부터 문인은 글을 쓰거나 학문을 하는 선비를 일컬었다. 그런데 문인은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예도 하고 바둑도 두며 풍류도 즐기는 등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관직을 가진 경우에도 글과 경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사회에서 양반계층은 모두 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전통적인 문인과 근대의 전문적인 작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현대에도 문인을 글쓰는 전문가라는 의미로 쓰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업으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작가로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채호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문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글만 쓰는 전문적인 작가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글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작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문인이 맞다. 그것이 독립운동가, 교육자, 언론인이었으며 동시에 시와 산문을 두루 썼던 신채호를 문학적인 의미에서 규정하는 어휘일 것이다.

문인 신채호는 어려서 총명했다고 전한다. 몰락한 양반 가계에서 태어난 신채호는 당시의 풍습대로 한자를 배웠다. 충청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태어난 신채호는 1886년 7세 되던 해 부친 신광식이 타계하자 그 이듬해인 1887년 8세 되던 해, 가문의 고향인 청원군 귀래리로 돌아왔다. 서당을 하던 조부는 한학을 하던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신재호, 신채호 두 형제에게 한학을 가르쳤다. 이때 신채호는 병약했지만 부지런하고 총명한 덕성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일찍 깨치고, 1888년에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를 해독하고 시를 짓기도 했다. 이때 지은 시는 본격적인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서당에서 연습을 하는 정도였지만 신채호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14세 되던 1893년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통독하고 많은 시문을 지었다고 전한다. 아쉽게도 어린 시절에 신채호가 쓴 글은 남아 있지 않다.

이후 신채호는 여러 곳에서 한학과 학문을 배웠는데 특히 학부대신을 지낸 천안의 신기선에게서 전통적인 학문을 배우고 또 서양의 서적을 접했다. 얼마 후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교하여 박사가 되었지만, 신채호는 당시 풍전 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직에는 나갈 바가 아니다’ 라면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교육운동은 애국운동이면서 계몽운동으로 지식이 있어야 나라를 구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실리면서 폐간되었는데 이때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재시일야방성대곡」을 집필했다. 이 시기에 신채호는 논설이나 격문과 함께 문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다. 결국 1905년 위급준망한 나라의 현실이 신채호로 하여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며 대중계몽에 적합한 문학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와도 관계가 있다. 당시에는 양반이나 지배 계층만이 한문을 읽을 수 있었고 전체 인구 2천만 정도 중에서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자로 글을 써서 계몽을 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면 개화기 이후에 도입된 국한문 혼용체는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대중적 독서에는 부적합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국한문혼용체가 적합했던 것이다. 그리고 논설과 같이 딱딱하고 논리적인 글은 독자층의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은 일부 지식인 계층만이 접할 수 있었고, 글이 정치나 경제 등 국가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인식한 신채호는 쉽고 재미가 있으며 조선인들을 직접적으로 계몽하여 국가위급을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단(文壇)과 같은 작가들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문인과 정치가 또는 사상가가 구분되지도 않았고, 또 신문이나 잡지도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작품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글로 문학적인 창작을 한다는 것 역시 지금과 달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1900년대 초에는 중세의 시가나 산문 또는 소설은 근대적인 문학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막 근대문학이 태동하려던 시기였다. 신채호가 눈을 돌린 문학은 독자적인 자율성이 있는 하지만 정치 경제 등 삶의 토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신채호는 역사전기소설과 같은 쉽고 재미있는 소설을 번안하거나 창작했다.

이인직 등과 다르게 신채호는 문학만으로 문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으로부터 문학을 생각했다. 여기서 문학적 전통에 대한 계승의 문제가 대두한다. 조선 후기 중세까지의 문학전통은 1900년 전후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전통단절론이고 그 이후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이 조선에 이식되었다는 것이 이식문학론이다. 전통적인 문학은 조선식의 한시, 전기, 시가, 문장 등과 아울러서 한글 시조, 가사, 판소리계 소설, 설화, 민담, 전설 등이다. 이러한 중세 문학양식은 1900년 전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른바 고소설 또는 고대소설은 새로운 형태의 신소설 또는 개화기 소설로 이행했으며 시조나 가사는 신체시 또는 신시로 이행했다. 신소설, 개화기 소설, 신체시, 신시 등은 중세까지의 전통문학과 근대문학의 중간에 놓인 이행기의 문학으로 그 문학 형식이나 내용이 불완전한 형태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채호 문학이 시작한다. 봉건 중세의 문학전통을 계승하기는 하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 그의 창작태도는 평생에 걸친 중요한 창작의 방식이었다.

시

신채호는 많은 시가를 창작했다. 역사연구나 논설에 비해서 신채호의 글임을 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시가다. 그래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고증도 하고 서지적 연구를 거듭하여 지금까지 신채호의 시라고 알려졌던 것, 그리고 반대로 신채호의 글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작품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을 감안하여 2008년 독립기념관에서 『단재 신채호 전집』을 편찬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 전집에 따르면 신채호는 비교적 적은 양의 시가를 남겼는데 주로 한시였고, 더러 한국어 시나 국한문 혼용의 시가를 창작했다. 신채호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은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의 실천행위였기 때문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사(詠史)시나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그것은 시를 독립적인 문학양식으로 보지 않고 ‘글쓰기’라는 총체적인 부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의 한국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써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덩씩 그 피를 쥐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상하이에서)

「한나라 생각」 전문

(독립기념관, 『단재 신채호 전집』, 8권, 2008년, 461쪽)

이 시는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이기는 하지만, 민족을 생각하는 서경시인 동시에 교훈시이다. ‘한나라’는 조국 조선을 뜻하며 사랑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열정이다. 이처럼 신채호의 시는 역사적 의미나 현실적 내용을 자연의 경치를 뜻하는 경(景)과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정(情)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 산문 양식이 현실 인식에 투철한 결과라면 운문 양식은 자신과 자신의 심경에 대한 솔직한 심경의 표현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기생 연옥에게 주는 시」(중 기생 연옥)에서도 그의 강개한 성정이 잘 드러난다. 기생 연옥에게 주었다는 이 시에서 신채호는 ‘영웅을 조문하지 않고 의인을 조문한다’라고 썼다. 이것은 영웅호걸보다 의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일종의 교훈으로, 기생과 연관해서 시를 쓰면서도 성적인 연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상적 강고함만 남기는 신채호 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신채호를 일컬어 ‘칼날 같은 의지와 절개로 뭉쳐진 사람으로서 시인적 여유조차 아니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는 잘못이다. 신채호에게 있어서 문학은 그 자체로 삶의 형식이자 모든 것이었기에 효용성이나 공리성을 따로 인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시는 성과 정의 표현이다’라고 한 동양의 전통적 문학관은 공리성과 탈공리성을 아울러 포괄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채호 문학에서의 효용성은 문학의 내재적 본질이었을 뿐임을 말해 준다.

신채호의 시는 결연하고 강개한 것이 많다. 때로는 결연하고 때로는 처연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과 열거의 수사법이 선택된다. 그리고 강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진다. 자기확신을 통하여 그 글을 읽는 조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운명의 공동체의식을 권유하려는 기법이다. 또한 신채호의 문장은 영탄이 심하다. 이것은 시세를 한탄하는 지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거니와 그 영탄은 독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영탄과 반복은 사상이 지시한 본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문장의 기법으로 보면 영탄은 감정의 과잉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탄이 여러 문학적 장치와 더불어 사용되지 못하면 거칠고 저급한 문장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는 자기 특유의 격정으로 그런 저급한 느낌을 상쇄시키고 절박한 비장미를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영탄 어휘는 그 뒤에 이어지는 ‘약자’라는 운명의 공동체의식을 상기시킴으로써 위기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이 「천희당 시화」다. 시화란 시에 대한 비평, 시의 이론, 분석 등을 말한다. 천희당이 단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2008년 독립기념관에서 고증하여 신채호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시는 국민 언어의 정화다’, ‘강한 국가의 시는 강하고 약한 국가의 시는 약하다’, ‘근세 조선의 시는 약하고 음탕하다’ (독립기념관, 『단재 신채호 전집』, 8권, 2008년, 470쪽).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단재가 시를 역사, 사상,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단재에 의하면 시는 민

즉정신과 애국주의를 표현해야 하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글에서 신채호는 문학이 단지 감정의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러는 애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채호는 대표적인 시론인 「천희당 시화」에서,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았고 현실과 문학은 일치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우리가 양식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채호의 문장은 대다수가 교술의 형식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근대 계몽주의의 기법과 아울러 전통적인 문장기법인 교술로써 민족감정 이전의 동포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교술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세계 쪽으로 귀착된 자아의 세계화’이다. 이때 자아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신채호의 표현으로 하자면 소아와 대아인데 소아는 자아이고 대아는 세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더 큰 자기인 대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대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응당 소아를 희생하여 대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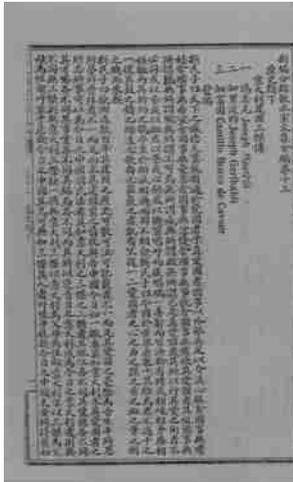
신채호는 약자와 강자의 차이를 큰 범과 작은 범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큰 범의 작은 범에 대한 폭력과 압제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일 뿐이라고 선언하듯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에 대한 회의,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혁명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는 적대적이지만 갈등은 없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무갈등의 확실성을 일원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거니와 세계에 대한 적대감이 무갈등으로 드러나는 이 아이러니(irony)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채호 글의 의미는 달라진다. 신채호는 시를

통하여 영탄, 울분, 비분, 강개 등 절망과 좌절의 한을 표현했다. 그에게 근대 자유시나 서양이나 일본의 시형식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채호는 근대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지적 근대를 피하는 특이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소설

신채호는 1907년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역술하는데, 역술이란 번역을 하면서 약간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형식이다. 이 역술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태리 건국의 위인들의 전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기체 소설과 맥이 닿아 있다. 이어서 1908년에는 『을지문덕』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창작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수다. 이 작품 또한 한 인물의 전기를 역사에 근거하여 기술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전기체 소설의 전(傳) 양식에 따랐고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상상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신채호가 본격적인 문학작품으로 쓴 첫번째 작품이 『을지문덕』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1907년은 이미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한 권력이 일본 제국주의로 넘어갔던 시기였고, 조선은 독립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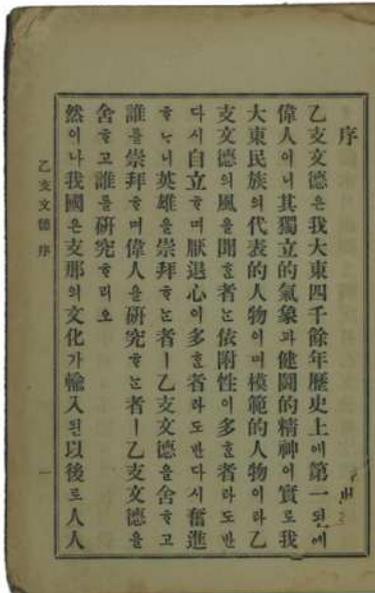


『이태리건국삼걸전』
단제가 번안한 『이태리건국삼걸전』
의 원전인 중국 량치차오의 저서.



『이태리건국삼걸전』
단제가 1907년 중국 량치차오의 저서를
번안하여 발행한 영웅전기.





『을지문덕』 서문
 단재가 저술하여 1908년 5월 30일
 광학서포에서 발행한 책.



을지문덕 전신상 삽화

민지 상태였다. 국가상실의 절박한 위기였던 것이다. 당시 신채호를 비롯한 많은 우국지사들은 국가회복, 부국강병, 반제항일의 정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암울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필요했던 것은 아름다운 시도 아니었고 구성이 탄탄한 소설도 아니었다.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민족혼을 살릴 구국의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문인들은 과거의 시인묵객처럼 한가하게 작품을 쓰는 대신 지사가 되어서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글로 애국애족의 정신과 반제항일의 정신을 담아야 했다. 그리하여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민족을 구할 영웅이었다. 그런데 상상을 통하여 영웅을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상상된 영웅 이전에 과거 역사 속에서 영웅을 찾아서 그 영웅의 일대기를 민중들에게 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을지문덕과 같은 고대의 영웅이었다. 이리하여 신채호는 이 고대의 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조선을 구하고, 강력한 국가의 힘을 표현하며, 독립적인 국가를 그리고자 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창작된 작품이 바로 신채호 특유의 역사전기소설이다.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은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의 운명을 일으켜 세우고자 영웅을 기대하던 조선 민중들의 열망을 작품으로 담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영웅대망론으로 영웅이 출현하여 나라를 구해줄 것으로 믿고 영웅의 힘으로 조선 사람들을 단결하게 할 수 있다는 민족의식의 소설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채호를 비롯한 애국계몽주의자들은 열강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를 문학창작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즉, 문학의 공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민족의 영웅을 상상 속에서 재창조하려는 의도에서 역사전기 소설을 지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신채호는 『이순신전』(1908), 『최도통전』(최영장군전)(1909) 등의 역사전기소설을 썼다.

이러한 소설쓰기는 1916년 작, 『꿈하늘』이라는 문제작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꿈속의 몽환적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문학작품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작품으로 생각하고 썼느냐는 것이 일차적인 논란이다. 그리고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전후를 미루어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채호는 자신을 이광수나 김동인과 같은 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쓴 모든 소설은 작품으로 썼다기보다는 민족해방의 방편이었는데, 『꿈하늘』 역시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열망을 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일종의 상상적 산문이다. 그렇지만 문학적 구조와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문학작품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191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형식과 문체를 가진 한글문체로서, 신채호 자신의 자전적 내용을 소설화한 근대문학 초기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일제에 대한 견결한 투쟁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신채호의 우국충정과 당대에 실현할 수 없는



『꿈하늘』

191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한글체로 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는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일제에 대한 무한한 투쟁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단재의 우국충정과 당대에 실현할 수 없는 민족적 열망을 한눈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환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족적 열망은 환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신채호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한놈을 내세워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냈다. 이 작품은 환상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근대소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사랑의 주제를 표현하려는 신채호식의 방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단군기원 4240(1907)년 어느 날이다. 주인공 한놈은 하늘로부터 큰 무궁화꽃에 내려앉는다. 그때 동편으로 우리나라 군사가 나타나고 서편에는 괴물 같은 다른 군사가 나타나 일대 접전을 벌인다. 우리나라 군사가 싸움을 이긴 후 장수가 무궁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수는 바로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었다. 을지문덕과 한놈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지고 한놈은 민족사의 여러 영웅들을 만난다. 한놈은 '진정 나라를 위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서술자로서의 한놈은 신채호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민족해방의 열망을 과거의 영웅과 환상적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용과용의 대격전』 역시 신채호의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신채호가 무정부주의 사상에 빠져 있던 1928년에 생산된 소설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무정부주의자로서의 허무와 비탄 등이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작품은 조선의 민중을 포함한 모든 피압박 민중의 처참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龍)님이 나리신다. 신년이 왔다고, 신년무진이 왔다고 미리님이 동방 아세아에 나리신다.

태평양의 바다에는 물결이 친다.

몽고의 사막에는 대풍(大風)이 인다. 태백산 꼭대기에는 5색 구름이 모여 든다. 이 모든 것의 모두가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다.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에 우랄산 이동의 모든 중생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었다. 부자(富者)와 귀자(貴子)들은 물론 미리님의 입에 맞도록 중국 요리, 서양 요리 등 갖은 음식을 장만하며 미리님의 귀에 호뭇하도록 거문고, 가야금, 피아노 등 모든 음악을 대령한다. 그러나 가련하게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은 미리님께 정성을 드리려 하나 아무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은 그 빨간 몸뿐이다 (독립기념관, 『단재 신채호 전집』, 8권, 2008년, 6쪽).

이것이 소설의 서두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인물 묘사 또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다른 소설과는 전혀 다르다.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다’에서 보듯이 작가가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하여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환상적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구성상의 특징은 「선언문」을 포함한 논설 문체와 소설적인 구성이 혼재되어 있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신채호의 소설은 현재의 소설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인물형상화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소설 구성의 원리와도 다르며, 문체 또한 독백체여서 이야기라는 형식과는 맞지 않는다. 이 작품도 『꿈하늘』과 마찬가지로 문단에 발표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다. 시와 마찬가지로 신채호는 글을 썼을 뿐이지, 그것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하는 창작

의 갈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착취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데올로기와 국가제도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 의지를 표명한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작품 전체가 부정, 회의, 비판, 환상 등 정신의 무정부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며 진화론과 자강론 또는 영웅주의 사관에서 벗어나서 모든 정치제도를 부정해야 했던 무정부주의자인 신채호식의 표현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의 소설은 소설 이전의 소설로써,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런 신채호의 문학을 예외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문학환경

신채호는 신숙주의 후손이다. 보한재라는 호를 가진 신숙주는 당대의 대문장가요 학자였으며 옥당의 권력을 가진 재상이었다. 한글창제에 큰 공을 세운 위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변절자라는 이름답지 못한 비판도 받고 있다. 신채호가 신숙주의 후손이라는 점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양반계층이었지만, 몰락한 향리의 양반이었으므로 약간은 그런 의식에서 자유로웠을 수도 있다. 신채호는 양반계층의 세계관, 즉 주자학적 이데올로기

를 넘어서서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로 일생을 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당시 대다수의 양반계층은 잃어버린 왕조를 그리워하며 비탄에 빠져 있었고 대부분의 양반계층은 과거지향의 복고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 1905년을 전후한 애국계몽기에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양반들도 없진 않지만 더 많은 양반들은 국권이 일제의 마수에 넘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식민통치에 동화하면서 살았다. 그렇지만 신채호는 양반계층이 걸어간 보편적인 길을 걷지 않고, 그렇다고 친일과 같은 변절도 하지 않고 민족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 이처럼 반봉건 의식을 가진 신채호는 예술에 관해서,

‘예술은 예술을 위하여 존재’라 하지만 또한 ‘고상한 예술일수록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 부론(附論)이 있음으로 그 말이 어느 만큼 승인됨이니 만일 예술이 인류에게 해가 되어 그 진보를 따라 인류의 행복이 감소될진대 인류의 예술을 증오하여 멸망시켰을지니 어찌 존재의 여지가 있으리오?

라고 하여 ‘고상한 예술론’을 주장했다. 이것은 신채호가 가지고 있던 ‘고상한 인생관’의 혁명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고상한 예술의 반대는 고상하지 않은 예술이다. 고상하지 않다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소아에 몰두하거나, 사회에 무익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문학은 일본의 문학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상하지 않은 문학이다. 그는 일찍이 문약한 조선의 지배계급을 배격하고 문예를 통한 혁명을 주장한 바 있다. 이광수류의 서구문학 풍을 배제하지는 문예의 순정을 역설한

셈인데, 이것은 당시의 국내 문단에 대한 혁명적 반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채호가 통렬하게 비판하던 애국계몽기의 문단은 어떠하였는가? 1908년 당시 신채호는 전래의 소설이 음담과 괴화일 뿐이므로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의 '신소설'을 창작하여 부패한 소설을 쓸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의 신소설은 이인직류의 신소설과는 계보를 달리하는 정신적 차원의 개념이었다. 국권이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이던 이 시기 신채호를 비롯한 몇몇 지식들은 영웅과 민족의 혼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채호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계몽의 방편으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해서 읽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 신채호가 생각했던 신소설은 영웅전기와 연의소설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진화론을 믿고 구국영웅을 고대하던 신채호의 우국충정과 연관이 있다.

그러던 신채호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조선문단을 노예문학으로 규정했다. 신채호가 보기에는 이광수나 최남선은 모두 고상하지 않은 노예문학을 하는 자들로서, 문학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신채호는 식민지 조선인 모두를 노예로 규정하는데 이때의 노예는 피식민지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에든 맹종하는 조선 사람들의 노예적 심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망명하여 중국에 있었으므로 식민지하의 조선과는 다른 비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신채호가 일갈한 노예문학은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민족의 노예적 근성을 뿌리 뽑고 식민지 노예적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국외로

나간 신채호는 절대주의의 관점에서 다물사상을 주장했다. 다물(多勿)사상은 국권회복, 고토(古土)회복을 염원하는 민족 절대주의였다. 다물사상의 절대주의 문학에 근거하여 신채호가 기가 쇠하고 의가 땅에 떨어진 1910년대 이광수나 최남선을 통렬하게 비판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의 혼백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문예가 오히려 학생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하여 그는 1910년대 조선문단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인직류의 신소설과 이광수의 작품을 두고 「낭객의 신년만필」에서

민중생활과 접촉이 없는 상류사회 부귀한 집안의 남녀 연애사정을 위주로 그리는 음란을 장려하는 문자는 더욱 문단의 수치이다. 예술주의 문예라 하면 현 조선을 그리는 예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도주의 문예라 하면 조선을 구하는 인도가 되어야 할 것이니 지금에 민중에 관계가 없이 다만 간접의 해를 끼치는 사회의 모든 운동을 소멸하는 문예는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다.(현대어로 고침 - 집필자)

라고 하여 단호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문학은 연애정사나 그리는 음탕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신채호는 이광수 김동인 등 서구문학의 세례를 받은 국내의 문단에 대한 질타와 함께 문예를 순정하게 되돌려 보자는 혁명적인 제안을 했다. 이처럼 그가 1910년대 경성의 문단을 '망국체를 지낸 연애문단'으로, 허무주의에 빠진 조선의 청년들을 '여학생의 단 입술을 빼는 청년'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것은 그의 이러한 절대주의 문학관 때문이다. 노예의 사상을 주인의 사상으로, 노예의 문학을 주인의 문학으로 역전시켜 보려는 신채호

의 사상은 민족 절대주의였다. 춘원이 근대시민사회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면 신채호는 근대시민사회를 부정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 상대주의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합리주의 정신, 민주주의 태도, 가치중립적 속성을 말한다. 반면 절대주의란 죽고사는 절대적인 문제만이 남는 일원론적 관점이다. 이 경우 소설은 살고죽는 일, 즉 역사·사회와 정확히 하나이며 소설은 마땅히 살고죽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 신채호의 사상은 대략 세 번의 변화를 거쳤으나 문학의 대사회적 효용성 즉 절대주의적 관점만은 변화가 없었다.

신채호의 문학이 자강론과 적자생존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과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即必死 死即必生)의 사상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그렇다. 이처럼 신채호는 자신의 일생과 민족의 운명을 하나로 보고 모든 생각을 했고 또 온몸으로 실천했다. 그에게 문학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의 방법이기도 했다. 신채호의 여러 족적 중에서 문학만을 떼어서 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문인을 넘어서고 교육자도 넘어서며 언론인도 넘어서는 '단재 신채호'라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인물이다. 신채호는 자기 자신과 국가 그리고 민족은 단 하나의 원리를 가진 동일체로 보았다. 전혀 타협이 없는 민족절대주의 사상은 그의 문학을 관류하는 사상이자 방법이었다. 한마디로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목표로 하는 절대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관

작가들은 자신만의 창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창작특성이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었을 때 창작방법론이라고 한다. 작가가 창작을 할 때 직관이나 감정만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획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창작의 과정은 직관 / 감정과 과학 / 기획의 두 요소가 조금씩 존재한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창작의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창작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세계관은 예술가가 세상은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다. 예술가는 어떤 사회, 어떤 인간,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채호는 자신만의 창작방법론과 세계관을 가지고 특별한 작품들을 생산했다. 그의 창작방법론은 현실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문학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원론이라고 한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주의적 일원론 속에서 언론활동, 문장쓰기, 역사연구, 독립운동, 교육활동을 행하였던 것이니 신채호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체제인 셈이다. 때문에 하나의 우주적 관점, 즉 일원론은 신채호의 문학을 여는 열쇠여야 한다. 그의 이러한 창작에 대한 태도는 『꿈하늘』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글을 짓는 사람들이 흔히 배포가 있어 먼저 머리는 어떻게 내리랴, 가운데는 어떻게 버리랴, 꼬리는 어떻게 마무리리라는 대의를 잡은 뒤에 붓을 댄다지만 한놈의 이 글은 아무 배포 없이 오직 붓끝 가는 대로 맡기어 붓끝이 하늘로 올

라가면 하늘로 따라 올라 가며, 땅 속으로 들어가면 땅 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앉으면 따라 앉으며, 서면 따라 서서 마디마디 나오는 대로 지은 글이니 독자 여러 분이시여 이 글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아래의 문체가 다르다 그런 말은 마르소서(독립기념관, 『단체 신채호 전집』, 8권, 2008년, 21쪽).

소설의 정형적인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창작 과정에 대한 신채호 자신의 이 설명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다. 신채호는 『꿈하늘』을 소설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꿈하늘』을 후대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칭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신채호 자신에게는 그냥 ‘글’이었을 뿐이다. 소설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설로 분석하고 논의해도 잘못은 아니겠으며, 그의 글은 한시를 제외하고는 문학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문장이었다.

신채호는 문학과 사회, 작품과 작가, 삶과 죽음 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민족이라는 근본원리의 단순한 변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원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 일원론이나 이원론으로는 신채호의 문학을 설명할 길이 없다. 국가·민족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그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기이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민족과 문학은 처음부터 하나라는 일원론이 신채호의 문학관이었다. 아울러 그는 문장에는 도가 실려 있어야 한다는 효용론적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문인들의 문학관이 신채호에게서 국가·민족과 문장은 하나라는 일원론으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신채호가 힘써 문학의 혼을 주장한 것은 문장의 근원을 심(心)으로 두고 심은 리(理)와 기(氣)가 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일

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망국의 원흉으로 지탄을 받는 통치 원리였던 성리학의 이념을’ 부정하기는 했지만 효용성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문학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이 신채호 문학관의 특수성으로, 봉건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했으면서 그 문학적 이념은 수용했다는 점이다.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반제 반봉건의 개혁사상으로, 거기서 다시 무정부주의로 사상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신채호는 성리학적 문학관의 절대주의와 일원론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세월에 따라서 그의 사상은 변했으되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문학관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상실 또는 국가상실의 위기 속에서 신채호의 지향점은 ‘민족 = 국가’ 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하고 있었다.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그의 목표 속에서 문학은 ‘민족국가’ 속에 용해된 분자였을 뿐이다. 두고두고 인용되는 그의 명문 「조선혁명선언」의 다음 대목은 신채호의 일원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 강도 정치 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는 누구이나? 문화는 산업과 문물의 발달한 총적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 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전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발전의 가능성이 있으랴

문화 또는 문학은 결코 민족의 생존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문장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을 본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유가의 문학관에서 신채호의 진보주의가

씩뒀다. 신채호에 의하면 일제의 정치는 강도정치이고, 그 강도정치 치하에서는 작가가 글을 쓸 때, 당연히 그 강도를 쫓아 버리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인 또는 작가가 연애담이나 쓰고, 개인의 감상이나 그리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연애이야기를 읽고 개인의 감상적 시를 보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살려야 할 청년들의 정신이 타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문화와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마디로 그의 문학관은 현실주의이면서 일원론의 특이한 것이었다.



새로 개축한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진스팡제후통 입구

No.6 북경에서의 문학활동

칭파오(淸袍)입은
조선선생,
헤이징의 단서

최옥산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칭파오(淸袍) 입은 조선선비 베이징의 단재

정양면(正陽門)에 들어선 외로운 망명객

1914년 끝자락, 신해혁명의 흥분도 잠시, 그 성과를 갈취하며 황제의 야망을 키우던 위엔쓰카이(袁世凱)의 집권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베이징성의 상징이자 정문인 정양면(正陽門)은 초취하되 고고함이 번뜩이는 칭파오(칭나라식 도포) 입은 낮선 선비를 맞았으니 그가 바로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였다.

사실 단재와 베이징의 인연은 일찍 1910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중국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치를 바로 앞에 두고 칭다오(靑島)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단재는 칭다오회의의 후 다른 동지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 러시아 영사관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다. 베이징에서 러시아 입경(入境)증명서를 기다리는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단재는 무엇을 했을까? 유리창(琉璃廠)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서(古書)들을 뒤적이는 단재의 진지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물론

이 무렵의 단재는 앞으로 이 도시와 거의 15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함께 하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베이징역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안겨오는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중국 전통건축예술의 극치를 자랑하는 정양면이다. 명청(明清)시기 베이징 내성(內城) 정문으로 속칭 첸먼(前門)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정양면은 남쪽은 동인당(同仁堂)약방을 비롯한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점포들로 붐비는 파스라얼(大柵欄) 상업거리, 북쪽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서쪽은 이름난 문화거리 유리창(琉璃廠), 그리고 동쪽은 지금은 이미 백화점으로 변해버린 베이징역을 마주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황성(皇城)의 심장부였다. 그런 까닭으로 1420년에 준공된 후로 수차례의 수난을 겪는데 특히 1900년에는 8국연합군에 의해 불타버림으로써 중국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혔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정양면은 1906년에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한 것이다. 그동안 강산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손님을 맞이하고 바라는 것만은 줄곧 정양면의 몫이었다.

수천년간 지속된 봉건통치체계의 붕괴와 근대적 도시화를 향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당시 정양면 지역 풍광을 단재는 드래곤과 미리의 대결을 통해 민중폭력 혁명의 승리를 그린 아나키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1928년)에서 상제를 찾아 떠난 천사의 발길을 따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명청(明清)의 역대 황제들이 천자라는 권위를 과시하고 천하를 통솔하기 위해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신성한 천단(天壇)은 민중의 축제 장소로 변해버리고 천

자들이 건너다니던 천교(天橋)는 근대도시경제문화의 발전과 시민계층의 확대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난한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평민의 낙원으로 탈바꿈했다. 상제의 운명이 길거리의 하찮은 노도사(老道師)에 의해 예고되는, 지고무상의 권력이 사라지고 민중의 힘이 살아 숨쉬는 세상, 베이징의 거창한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단재의 머리 속에는 새로운 독립 국가상이 무르익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을 터이다.

나라 없는 망국민으로서의 서러움, 권력의 주변부 인물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 자신의 사상적 논리와 현실과의 거리감으로 인한 고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희망과 기대를 안고 평양면에 들어선 단재, 베이징은 오직 국권회복의 일념으로 혼신을 불태우고 있는 이 외로운 이국의 독립운동가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 평양면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도(古都)의 옛 거리 진스광제(錦什坊街)에서

베이징의 중심거리 창안따제(長安大街)와 대칭으로 뻗어 있는 평안따제(平安大街)는 다시 명청시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고색고풍(古色古風)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수백년 역사문화의 전시장이라 불린다. 처음 베이징에 도착한 단재는 한동안 그 서북쪽에 위치한 진스광제에 거주했다. 명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진스광제는 황성의 가장 오래된 옛 거리 중

하나로 부근의 대형라마(大型喇嘛)탑 바이타(白塔)와 광제사, 역대제왕묘 등 유명한 고적들이 그 문화적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1919년 초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하여 상하이로 떠나기 전까지 단재는 전통 선비의 기질을 연상케 하는 이 옛 거리에서 조용히 역사, 문학 저술과 논설 집필에 전념했다. 그 결과로 1910년대 후반기 『꿈하늘』, 『백세노승의 미인담』 『일목대왕(一目大王)의 철추(鐵椎)』 등 작품들로 창작활동의 고조기를 맞으며 『北京日報』 등 당시 베이징의 쟁쟁한 언론지에 논설을 실어 문명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시 한창 활기를 띠고 거세게 확산되고 있던 중국의 아나키즘 사상에 서서히 매료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오랜만에 조용한 사색의 공간과 시간을 가진 단재는 전통과 근대를 넘나들면서 현실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론 창출에 골몰했고 보다 실천적인 독립투사로 거듭날 정신적 준비를 갖추었다. 마침내 1919년 5월 4일, 연초부터 새로운 혁명의 도래를 위한 준비로 들끓고 있던 베이징이 작열했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와 개성해방을 요구하는 5·4운동의 거센 물결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삼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서재에만 갇혀 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실천 행동의 무대로 뛰쳐나왔다. 진스광제의 외로운 이국 선비 단재도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이 가져다준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다. 진스광제에서 무르익은 착상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가끔 괴롭긴 했어도 1920년의 단재는 행복했다.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행복했고 “안성맞춤

한 뚝심한 대범함을 고루 갖춘” 신식여성 박자혜(朴慈慧)를 만나서 행복했다. 첫 번째 혼인 실패 후 10년 만에,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만난 박자혜는 단재에게 각별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위안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애뜻한 사랑의 숨결과 속삭임이 진스광제의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 있지 않을까. 고도 옛 거리의 아득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

꾸러우(鼓樓)의 북소리를 들으며

평양면과 자금성을 지나 곧게 북쪽으로 가노라면 꾸러우뚱따제(鼓樓東大街)와 띠안먼와이따제(地安門外大街)의 교차점에서 원(元), 명(明), 청(淸) 시기 베이징성 전체에 저녁을 알리던 꾸러우와 만나게 된다. 그 바로 북쪽에는 아침을 깨우던 종러우(鐘樓)가 대칭으로 마주하고 있다. ‘아침중 저녁북(暮鼓晨鍾)’으로 하루를 움직이던 베이징의 일상 질서는 1924년에 깨졌고 오랫동안 잠자던 북과 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 그믐날 축제의 밤이었다. 1900년 8국 연합군 침입시 일본군의 칼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꾸러우의 큰북에서 울려 나오는 북소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국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꾸러우는 일명 밍즈러우(明恥樓)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살아 있는 이 꾸러우 부근에서 단재는 베이징 생활의 마지막 8년을 보냈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면서 단재는



꾸러우(鼓樓) 입구



꾸러우(鼓樓)의 찢어진 북

이국땅에서의 서러움과 고독을 달래고 밝아올 새날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일어서며 놀랍게 변하고 있는 오늘의 베이징에서 꾸러우 주변은 여전히 백여년 전의 옛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지고 웅기종기 뻗어 있는 후통(胡同)들, 그리고 그 좁은 골목들에 촘촘히 들어앉은 회색의 허름한 단층집들... 세월의 풍상고초와 도시 하층민들의 고달픔이 서린 그곳은 허약한 몸과 지독한 가난을 딛고 자나 깨나 구국대안 창출에 골몰하던 조선의 애국지사 단재의 자취가 남아 있어 더욱 소중하다.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 전경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의 기억

1921년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10여년의 방랑생활에 지친 단재에게 『천고(天鼓)』의 창간과 만아들 수범(秀範)의 출생은 두 가지 크나큰 기쁨이었다. 박자혜와의 사랑의 보금자리도 이미 진스광제에서 꾸러우 동남쪽 차오떠우후통으로 옮겼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 베이징의 수천 개 작은 골목들이 후통으로 불린 것은 명나라 때부터이며 ‘호동(胡同)’이라는 두 글자는 몽골어 우물(水井)의 차용어라 한다. 후통에 대해 단재는 『대흑호의 일석담(大黑虎의 一夕談)』에서 조선의 동(洞)과 같다고 특별히 주를 단 적이 있다. 원(元), 명(明), 청(淸) 삼대에 걸쳐 국가교육관리의 최고행정기구와 최고학부였던 국자감가(國子監街)와 공자를 공양하던 장소인 공묘(孔廟)가 지척이라서 그런지 길이가 50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차오떠우후통은 중국에서는 드물게 지금도 국경일이면 집집마다 국기를 내걸 정도로 애국의 정서가 깊이 스며 있는 곳이다. 어쩌면 그러한 분위기가 오직 나라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온 이국의 방랑객 단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지도 모른다.

차오떠우후통에서의 첫 일년, 단재는 왕성한 정력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적극 전개했고 특히 월간잡지 『천고(天鼓)』의 집필에는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잡지의 곳곳에서 우리는 신문화운동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사상적 모색을 시도했던 그의 정신사적 체험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재는 리쓰쨥(李石會), 리따차오(李大釗), 평위상(馮玉祥) 등 그 시대를 주름잡던 중국의 쟁쟁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상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독립운동에 대



동아일보 1929. 12. 12
박지혜여사의 기사와 사진

冷突에 肌腸 쥐고

母膝에 兩兒 啼泣

—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

申采浩夫人訪問記

아름사(申采浩夫人)를 뵈는 것은... (The text describes the author's visit to Mrs. Shin Chaeho, detailing her appearance and the atmosphere of the meeting. It mentions her age and her role as a mother of two children who are crying due to the cold.)

이부사(申采浩夫人)를 뵈는 것은... (Continuation of the report, describing the conversation and the author's observations on the woman's life and her children's situation.)

星土의 兩側 幼兒

星土의 兩側 幼兒 (Children on both sides of the star/earth). This section likely discusses the plight of children in a specific region, possibly related to the broader social conditions mentioned in the other articles.

星土의 兩側 幼兒 (Continuation of the article about children, focusing on their living conditions and the challenges they face.)

星土의 兩側 幼兒

星土의 兩側 幼兒 (Another section or continuation related to the children's situation, possibly providing more specific details or a different perspective.)

星土의 兩側 幼兒 (Further continuation of the article, discu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children.)

星土의 兩側 幼兒

星土의 兩側 幼兒 (Final part of the article, concluding with thoughts on the future and the need for social reform.)

한 중국집권층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애썼다.

그러나 5·4 운동의 흥분이 차츰차츰 가시고 한국독립운동도 처음의 생기를 점점 잃어가던 현실은 단재의 바람을 따르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권회복의 꿈을 안고 찾아온 땅이건만 십년이 흘러도 그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실망과 안타까움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아프지 않았을까. 큰 바람이 이는 추운 밤, 어느 허름한 방에서 남몰래 흐느끼던 고독한 조선 선비 단재를 차오편우후통은 잊지 못할 것이다.

빈한(貧寒)이 깔린 따헤이후후통(大黑虎胡同)과 함께

이처럼 희망과 실망 속을 오가면서 조금씩 지쳐갈 무렵 단재는 또 이제 막 하나로 묶인 사랑하는 가정을 환국시킬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거주지도 차오편우후통에서 서쪽으로 2킬로미터쯤 떨어진 꾸러우 서북쪽의 따헤이후후통에 옮겨갔다. 길이 150미터도 되나마나하고 승용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비좁은 골목에 지금은 외벽마저 군데군데 떨어져나가기 시작한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1,2평도 되나마나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울타리 안에 여러 가구가 북적이고 있는 따헤이후후통의 풍경은 그야말로 도시 최하층의 전형적인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단재는 1924년 초, 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다. 따헤이후후통을 둘러보고

있으면 당시 단재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이 저러온다.

혹독한 경제난은 힘든 나날 중에도 그나마 단재에게 한줄기 빛과 즐거움을 주었던 『천고(天鼓)』마저 더 이상 꾸려나갈 길이 없게 만들었고 1921년부터 정열적으로 추진하던 국민대표대회도 파벌간의 갈등으로 그때까지 개최도 못한 채 계속 진통을 겪고 있었다. 단재는 흑심한 좌절과 회의에 빠졌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조용히 역사학자로 돌아간 그는 시종 뜻을 펼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망명객의 한없는 서러움으로 이어졌다. 단재는 자신의 시 「임술년 가을 밤에(1922)」를 통해 이와 같은 내심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 더욱더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신다.

외로운 등불 가물가물 남의 시름 같이 하며
일편단심 다 태울 제 내 맘대로 못할러라
창 들고 달려 나가 나라 운명 못돌리고
모질러진 붓을 들고 청구 역사 그적이네
이역 방랑 십년이라 수염에 서리 치고
병석에 누운 깊은 밤에 달만 누각에 비쳐드네
고국의 농어 회 맛 좋다 이르지 마라
오늘은 땅이 없거늘 어디다 배를 맏고
- 「임술년 가을 밤에」(1922)



따혜이후후통(大黑虎胡同)

아무도 돌봐 주는 이 없이 혼자 병석에 누워 있는 단재에게 조국은 얼마나 큰 그리움이고 아픔이었을까. 어떠한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따헤이후후통은 그 쓸쓸한 광경을 그저 측은히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 골목의 빈한과 함께 하루하루 허약해가는 이 방랑객이 바로 명망 높은 한국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권회복의 불타는 의지는 단재를 역사저술로 소일하거나 병석에 누워서 개탄하게 놔둘 리가 없었고, 1922년 말부터 이상과 현실의 교차점을 찾기 위한 그의 활발한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에스페란토강습반에 참가하여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이며 계몽선구자인 루쉰(魯迅), 쉰우쥘런(周作人) 형제 등과 긴밀한 접촉을 가졌다. 1923년 1월 단재는 또 한국민족독립운동의 투쟁정신을 극명하고도 힘차게 천명한 역사적인 문서「조선혁명선언」을 세상에 내놓는다.

빈곤이 깔린 따헤이후후통은 단재를 잠시의 실망과 고통에 빠지게는 했어도 결코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베이징 올림픽 공사로 이 골목도 수백 년의 아픈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단재에 대한 기억만은 뚝뚝 잡아두고 싶다.

스명안(石燈庵)의 정취를 느끼며

베이징의 혼잡한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실천행동을 잠시 정지하고 저술활동에만 몰두하던 1918년, 단재는 자신만의 조용한 사색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 한동안 진스팡제 가까이 있는 스명안이라는 작은 암자에 우거하게 된다.

원나라 때 세워져서 처음에는 길상사(吉祥寺)라 불리다가 그 땅 밑에서 석등을 파낸 후로 스명안(石燈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암자는 경치 좋은 타이핑후(太平湖)를 끼고 있는 데다 다른 암자들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줄곧 남승주지(男僧住持)였던 관계로 한때는 『홍루몽(紅樓夢)』의 저자 초우쉐친(曹雪芹)을 비롯한 많은 문인학사들의 발길을 끌었다 한다. 그러나 1910년대에 이르러 번화했던 고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찾는 사람도 갈수록 뜸해졌다. 그렇게 되자 당시의 주지였던 웨천(越塵)스님은 한가한 방들을 매달 40-50원에 임대하여 암자의 유지비를 마련했는데 그 때문에 단재도 쉽게 거기에 우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국의 미술대가 치바이쓰(齊白石)도 1920년에 이 암자에 머물렀었다 하니 당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을 거쳐 갔을까.

세월이 흘러 암자는 빼곡하게 들어앉은 고층건물들 속에 묻혀지고 중국 비극의 작가 로우썬(老舍)가 몸을 던진(1966.8) 그 유명한 타이핑후(太平湖)마저 이젠 자취를 감췄다. 모든 것이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린 지금, 오로지 암자의 이름을 딴 스명후통(石燈胡同)만이 깊은 사색에 잠긴 단재의 그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

센량쓰(賢良寺) 불상을 향한 비난

진스광제에 머무를 당시 단재는 또 유명한 상업거리 왕푸징(王府井)의 뽕짚후통(冰蓋胡同)에 있는 센량쓰(賢良寺)를 돌아보고 그때의 감회를 자신의 시「현량사 불상을 보고」에 담았다. 이 시는 베이징의 단재 행적을 직접 전해주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집주고 돈도 주니 통부처의 대가리에
이백년 청실(淸室) 은혜 산 같이 쌓였어라
은혜를 못 갚을망정 눈물조차 없단 말가
-「현량사 불상(賢良寺 佛像)을 보고」

센량쓰(賢良寺)는 1734년, 옹정(雍正)황제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 이친왕 윤상(怡親王允祥)을 기념하기 위해 원래의 이친왕부(怡親王府)를 개조하여 만든 절인데 건륭(乾隆) 20년(1747년)에 뽕짚후통으로 옮겨온 후 줄곧 베이징에 들어온 외성(外省)의 조정대신들이 머물면서 정무를 보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청나라의 많은 고관대작들도 여기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한다. 그런 센량쓰(賢良寺)의 불상이 청실의 몰락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는 단재는 말 못할 분노가 치밀었다. 더욱이 청나라에 조공 바치러 온 조선의 사절들도 이곳에 머물다 갔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 한국의 망국을 그저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던 중국집권층에 대한 분개로 이어졌을 것이다.



까오리잉촌(高麗營村)

청대의 영육이 밴 선량쓰(賢良寺)는 1920년을 전후하여 학교로 활용된 작은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쇼핑센터 싼똥안(新東安)시장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어딘가에 파묻혔을 그 불상도 이제는 단재의 당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까오리잉(高麗營)의 발견

이렇게 고민을 해소하고 사유를 정리하면서 고찰(古刹)을 찾아다니던 단재에게 뜻밖의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까오리잉(高麗營)이라는 유적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까우리잉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중국 사료는 대부분 당나라 때 조선인들이 하나둘 모여와 정착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나 단재는 연개소문이 당태종과 싸우던 곳이기며 고려영이라는 이름이 전하여 왔으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던 단재가 까우리잉에 얼마나 큰 애착을 가졌는지는 그곳을 자신의 소설「백세노승의 미인담」의 한 무대로 설치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까오리잉 답사 후 바로 지은 시로 보이는 「고려영(高麗營)」에는 전성시대 선민(先民)의 유적(遺蹟)이 불러온 개탄도 녹아 있어 그곳을 둘러볼 당시 단재의 착잡한 심경이 느껴진다.

고려영 지나 가니 눈물이 가리워라
나는 서생이라 개소문(蓋蘇文)을 그리랴만
가을 풀 우거진 곳에 고적(古蹟)을 설어하노라
-「고려영(高麗營)」

상광산(上方山), 홍뤄산(紅螺山)에서 번뇌를 넘고

1924년 봄, 단재는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글을 쓰겠다며 따헤이후통 근처에 있는 관인쓰(觀音寺)에 들어가 약 6개월간의 승려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단재는 왜 자신이 생활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절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속세가 싫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 단재의 심적 갈등의 표현이 아닐까.

승려생활을 끝마치고 속세에 돌아온 단재는 얼마간은 대외적인 활동을 접어두고 저술에 몰두하는 한편 틈틈이 베이징 근교의 명산(名山)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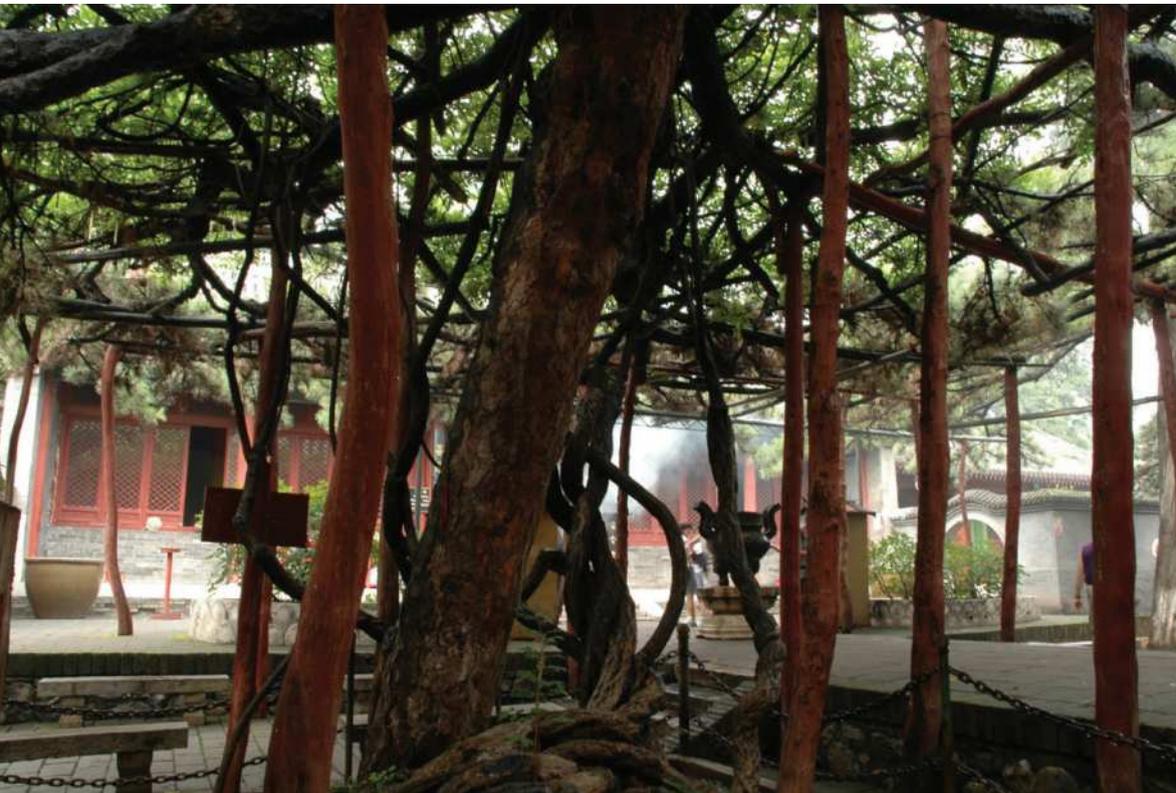
단재의 발길이 닿은 상광산(上方山)은 “남에는 소주(蘇州)와 항주(杭州)가 있고 북에는 상방(上方)이 있다” 할 정도로 절경이며 특히 석굴과 암자가 많아서 유명하다. 또 다른 산 홍뤄산(紅螺山)은 자연풍경도 아름답지만 그 위의 1600

년 역사를 가진 홍뢰쓰(紅螺寺) 때문에 더욱 소문이 높다. 일명 따밍쓰(大明寺), 후꾸오쓰(護國寺)라고도 불리는 이 절은 18세기 말 쩌쨍주스(際醒祖師)(1747-1810)가 여기에 정토도량을 창건하면서 조선과 동남아지역 등의 승려들이 모여들며 명성을 떨쳤다 한다. 단재의 소설 「백세노승의 미인담」에서 노승이 찾아 갔다는 대명산(大明山), 대명사(大明寺)가 바로 이곳이었다.

이처럼 고찰(古刹)과 명산(名山)을 찾아 번뇌를 극복한 단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늘과 바다가 넓고 넓구나
마음놓고 다녀도 거칠 것 없네
생사를 잊었는데 병이 무엇인가
명리를 떠났거늘 무얼 구하라
-「계해(癸亥) 시월 초이일(十月初二日)」부분

단재는 1926년 여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입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재개한다. 이때부터 필명이 아닌 '申采浩' 라는 본명을 써서 조금의 숨김이나 움츠림이 없이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리하여 단재는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마련에 서슴없이 나섰고 결국 차디찬 감방에서 장엄한 생을 마감했다.



홍취쓰(紅螺寺)

식민지 안에서 사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지나간 세월 이국땅을 떠돌다가 사라져간 비운의 천재 단재 신채호를 베이징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간 그 칭파오 입은 조선 선비가 그리워지기도 할 터이다.

(최옥산, 「칭포우(淸袍)입은 조선선비, 베이징의 단재」, 『민족문학사연구』, 2004/통권25호에서 발췌)



꾸러우(鼓楼)



지안에서 바라 본 압록강

No.7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망명 유적지를 따라 1

만주에서
해이징까지
6월의 기록

이재표
충청리뷰기자



만주에서 베이징까지 6일의 기록

나라를 빼앗겨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빼앗긴 역사까지 찾으려한 담대한 사내가 있었다. 아니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세움으로써 나라를 찾으려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성균관 박사를 지낸 유학자였지만 민중을 일깨우기 위해 한글전용을 주장했고 언론인이 된 뒤 촌철살인의 문장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 사내가 바로 우리지역(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서 성장)이 낳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다.

단재는 1907년 번역서인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시작으로, 을지문덕, 이순신, 최도통(최영) 등 역사적 영웅들의 전기를 집필하며 사위어가는 민족혼에 불을 붙이려했다. 경술국치(한일강제합병)로 주권이 송두리째 넘어간 1910년, 단재는 신민회의 결정에 따라 망명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후 단재의 삶과 죽음을 돌이켜볼 때 선생에게 ‘망명’이란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 사전(辭典)에 나와 있는 망명은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



지안의 광개토대왕릉

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김'인데, 단재는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히 싸우기 위해 고국을 등졌기 때문이다.

실로 단재는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에서 언론인이자 역사학자로 살며 고난 속에서도 꺾김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일제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외교론, 준비론을 펴는 망명기들과도 싸웠다. 1914년 옛 고구려 땅을 둘러본 뒤에는 대고구려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조선상고사』, 『조선사』 등을 썼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문이 “(초략)갓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중략)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중략)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후략)”라고 민중의 뒤에서 뒷걸음을 칠 때 단재는 1923년 독립운동의 투쟁정신을 극명하고도 힘차게 천명한 역사적인 문서 「조선혁명선언」을 세상에 내놓는다.

「조선혁명선언」은 조국의 현실을 예들려 말하지 않고 “강도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했다”고, “각종 잡세가 날로 증가하여 피는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어지간한 상업가들은 일본의 제제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어 차차 자본집중

의 원칙 하에서 멸망할 뿐”이라고 냉철하게 단정하며 시작한다.

선언은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 통치’의 ‘약탈제도’의 ‘사회적 불균형’의 ‘노예적 문화현상’을 타파함”으로 귀결된다.

천재적인 재능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쏟아냈던 단재는 1928년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어음 변조를 했다가 타이완(臺灣)의 지룽(基隆)항에서 체포된다. 이후 다롄(大連)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旅順)감옥에 수감됐으며, 건강악화로 인해 보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친일인사가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거절한 채 1936년 2월21일 죽음을 맞는다.

단재가 서거한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서야(2009년 4월 18일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절차상의 불가함으로 미뤄져왔고, 그 절차를 바꾸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졌기 때문인데 뒤늦은 국적회복을 지하에 계신 단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를 일이다.

2008년 11~12월 제13회 단재문화예술제전을 봉행한 제전추진위원회는 2009년 1월4일~9일까지 공동대표인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허원 교수를 단장으로 단재의 망명루트를 따라 해외투쟁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역사기행을 추진했다. 기행은 뤼순감옥을 시작으로, 통화(通化), 집안(集安), 선생이 10여 년 동안 머물렀던 베이징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 기행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준비작업 성격을 띤 것이다.

이번 기행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① 뤼순감옥의 단재 어디서 순국했나? ② 베이징의 단재 흔적 ③ 단재의 벗들 ④ 단재와 대고구려사상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① 뤼순감옥의 단재, 수감방도 몰라

정치범 수감했던 3층 벽에 조선혁명선언만...

“무장투쟁론 日의 더 큰 무력 막으려한 혜안”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는 한중(韓中) 모두에게 있어 생채기투성이의 땅이다. ‘영시불망(永矢不忘) 즉, 영원히 맹세해 잊지 않는다’ 는 이 말은 뤼순구에 있는 만충묘 기념관의 현판에 새겨진 글귀다. 중국인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뤼순의 기억’ 은 청일전쟁 당시 2만여 명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치욕의 역사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뤼순은 영원히 맹세해 잊지 말아야 할 영시불망의 땅이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통감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뒤 암매장 됐으나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곳이고, 단재 신채호 선생 역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36년 불귀의 객이 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신채호와 안중근의 자취를 찾아간 2009년 1월5일 뤼순의 하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칼끝 같은 바람도 매서웠다.



다렌시 위순구에 있는 위순감옥은 신채호와 안중근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장소다. 중국이 문화계로 지정한 이곳에는 당시의 참혹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韓中人 수감자 연간 2만여 명 달해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됐고, 국력을 소진한 중국은 반(半)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칭다오(靑島)는 독일의 조차지가 됐고, 다렘은 러시아에게 넘어갔다. 뤼순감옥은 러시아가 동북 3성에서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중국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1902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에는 약 80여개의 감방이 있었다고 한다.

뤼순감옥이 악명 높은 장소로 바뀐 것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부터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뤼순을 점령하게 된 후 1907년 현재의 형태와 규모로 대폭 확장된 것. 총 면적은 약 2만6000㎡로, 275개의 여러 형태 감방이 있으며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형무소는 담장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담장 안에는 수색실, 고문실, 사형집행실, 15개의 공장 등이 있고 담장 밖에는 강제노동소인 벽돌 공장과 과수원, 채마밭 등이 있었다.

건물의 외형은 큰대(大)자 모양의 방사형 구조이다.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복도를 따라 감방이 나란히 나열돼 있으며 복도 중간부분에는 간수들의 감시 및 투광, 상하층의 공기소통 역할을 하는 난간이 설치돼 있다. 주로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많이 수감됐는데, 1906~1936년 사이 수감자는 연간 약 2만여 명에 달했다.

1945년 8월 소련 붉은 군대가 뤼순에 주둔하면서 사용이 중지됐고, 1971년 복원을 통해 전시관으로 꾸며져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1988년 중국정부는 이곳을 국가중점역사문화재로 지정했다.



신채호 선생이 수감됐던 감방은 아직 고증되지 않은 상태. 다만 정치범 수감동에 역사적인 「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부착돼 있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은 정당방위”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뤼순감옥 어디에서 수감돼 있다 유명을 달리했을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고증은 찾을 길이 없다.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방에 금속제 대형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 것과 달리 단재의 수감 흔적은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3층 정치범 감방 복도에 걸려있을 뿐이다. 전시관으로 변모한 뤼순감옥 복도에는 수감됐던 지사들의 문장들이 전시돼 있다.

단재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베이징 거주)는 이에 대해 “애 아버지(신수범·단재의 장남, 1991년 작고)가 한중 수교 전에 돌아가셔서 딱히 어디인지 모른다. 정치범들은 3층 한쪽으로 수용했다고 하는데, 6년 동안이나 수감이 됐기 때문에 이 방 저 방으로 옮겨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재연구가인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도 “안중근 의사는 중국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중국인들에게도 통쾌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단재는 불굴의 지조로 나라사랑을 펼친 실천적 사상가였지만 선생이 항일의 도구로 택한 아나키즘(무정부주의)으로 인해 남북은 물론 활동무대인 중국에서도 후세의 접대가 소홀한 것이다.

단재 망명유적지 기행의 단장인 서원대 허원 교수는 “단재선생이 역설했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은 독립과 자존, 민족의 정체성을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에 대한 항거의 의미였으며, 이는 일종의 정당방위였다. 단재 서거 1년 뒤인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의 야욕을 본격화한 것을 볼



안중근 의사가 수감된 감방은 책상까지 있는 독방.
중국정부가 안 의사의 쾌거를 기념해 안 의사의 얼굴이 부조된 금동 안내판을 부착했다.

때도 일본이 더 큰 무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단재의 주장은 해안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② 단재…베이징에 올린 하늘북

도심개발로 사라져가는 단재 흔적 곳곳 확인

1월5일 다롄(大連)시 뤼순(旅順)구에 있는 뤼순감옥을 답사한 단재문화제전추진위원회 역사기행단은 6일 단재에게 대고구려사상을 심어준 통화(通和), 지안(集安)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돌아본 뒤 3층 침대칸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달려 7일 오후 1시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기행단은 9일 오전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실천적 사상가로서 활동했던 삶의 흔적들을 좇았다. 하지만 선생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급속한 도심개발로 후통(胡同·골목이라는 뜻의 몽골어음을 빌려 쓴 단어)들이 파괴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지방 군벌이었던 장쥘린(張作霖)의 아들인 장쉐량이 단재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그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재선생이 베이징에 도착해 4년여 동안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스광제 21호.

또한 단재가 『북경일보』 등 중국 언론에 논설을 기고하면서 각종 역사서 등을 집필한 곳으로 추정되는 스명안(石燈庵)이 있던 장소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단재선생이 베이징에 처음 도착해 자리를 잡았던 진스팡제(錦什坊街), 박자혜 여사와 신희의 단꿈에 젖어 2년을 보냈으며 천고(天鼓)의 집필지인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 부인과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빈한한 세월을 보냈던 따헤이후후통(大黑虎胡同) 등을 둘러봤다.

이 가운데 장쉐량의 저택과 진스팡제 등은 머지않아 헐릴 것으로 알려져 보존은 불가능하더라도 역사적 고증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꿈하늘』이 태어난 진스팡지에(1914~1919)

소설·역사서 창작, 신문 논객활동 등 집필의 터전

1914년이 저물어가는 무렵 베이징에 칭파오(칭나라식 도포)를 입은 조선 선비가 나타나는데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다. 1910년 망명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등에 머물던 단재 선생을 베이징으로 부른 사람은 훗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형인 이회영 선생이었다. 상하이의 파벌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부름에 응해 베이징을 새로운 독립운동의 무대로 선택한 것이다.

최옥산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조선족)는 단재문화제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단재와 베이징 심포지엄(2008년 12월17일 서원대 미래창조관)’ 주제발표를 통해 “처음 베이징에 도착한 단재는 이회영·시영가족이 살고 있던 진스팡제에 거주하면서 이들과 가까이 지냈다. 단재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잠시



이 집에 살고 있는 노인(오른쪽)은 1951년 이사를 왔을 때 기와집 한 채가 있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모두 새로 지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왼쪽은 허원 교수.

상하이로 떠났던 1919년 초봄까지 진스광제에 머물렀다”고 고증했다. 진스광제는 명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자금성의 서쪽 북해공원 옆에 위치해 있다.

중국전문 여행사인 알자여행의 대표이자 전직 기자의 소질을 살려 그동안 단재의 망명생활에 대한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기도 했던 조창완 대표의 안내로 단재가 거주했던 장소로 유력한 진스광제 21호를 찾아냈다.

옛집 1951년에 허문 사실 확인

조창완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스광제의 골목 안쪽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 들어섰다. 단재선생이 거주했던 진스광제의 초입도 곧 개발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재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21호도 후통의 대부분 주택들이 그러하듯 고풍이 느껴졌지만 확인 결과 단재가 거주할 당시의 주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1호에 거주하는 팔순의 중국노인은 “1951년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부수고 모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단재는 진스광제에서 4년여에 걸쳐 머물며 역사, 문학저술에 몰두했다. 1914년 대종교 간부의 요청으로 옛 고구려 땅을 답사했던 터라 넘치는 영감이 집필에 전념케 했을 것이다.

실제로 1916년에 쓴 단재의 대표소설 『꿈하늘』은 단재 자신이기도 하고, 조선의 개개 민중이기도 한 ‘한놈’이 등장해 국난을 이겨낸 역사의 현장을 보여준다.



단체가 집필 장소로 활용했던 암자인 스명안(石燈庵)의 위치를 찾았으나
옛날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스명안 자리를 찾아내다(1918 집필처)

거주민 “한국의 항일전사가 머물렀다더라”

베이징의 단재는 중국의 여러 혁명가들과 교류했고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집필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집필 장소로는 베이징의 사찰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단재는 1924년 관인쓰(觀音寺)에서 6개월 동안 승려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후 아나키스트 이필현과 함께 파통쓰(法通寺)에서 살았다는 것이 공판기록에도 나온다.

단재의 집필 장소로 유명한 곳 가운데 하나가 스명안(石燈庵)이다. 최옥산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단재는 저술활동에 몰두하던 중 1918년 스명안이라는 작은 암자에 머물기도 했다. 이 절은 원나라 때 세워진 절인데 인근에 타이핑후(太平湖·호수)를 끼고 있는데다, 1910년대의 주지였던 웨천(越薦)스님이 한가한 방들을 싼값에 임대해 수많은 중국의 문인학사들도 이곳을 이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엔지(延吉)에 있는 최 교수와의 전화통화에 힘입어 스명후통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민들에게 물어 물어 스명안이 있던 장소를 찾아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20여 년 전까지도 스명안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며 그 자리를 지목했다. 그러나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선 건물 때문에 암자는 물론이고 그 유명하던 타이핑후마저도 자취를 감춘 상황이니 옛 모습을 짐작키는 어려웠다.

그런데 스명안 자리 바로 옆에 사는 40대 남자가 뜻밖에도 “이곳에 ‘한국인 항일전사가 머물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 기행단을 들뜨게 했다. 그



차오떠우후통은 중국정부가 보존하려는 대표적인 후통이다.
사진은 몽골군왕 성거린친의 집이었던 승왕부

항일전사가 단재선생이든 아니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으리라는 짐작만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혼의 단꿈과 하늘복, 차오떠우후통(1920~1922)

결혼과 득남, 월간지 『천고』 발행 등 각별했던 장소

단재 선생에게도 범부의 행복이 있었다면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에서의 짧았던 2년이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생각해본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정원 의원(충북)에 피선되고 『신대한』을 창간해 주필로 활동했으나 결국 또 다시 실망감만 안고 1920년 4월 베이징으로 돌아온 단재는 이 회영(이시영 선생의 형·1932년 고문 끝에 옥사)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의 중매로 박자혜 여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42살이 되던 이듬해 장남 수범 씨를 낳았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생은 또 이 시기에 거의 혼자 손으로 논설, 국내독립운동 소식, 내국시문, 해외잡감 등 다양한 내용을 묶은 한문 월간지 『천고(天鼓)』를 발행한다. 『천고는 현재 베이징대 도서관 희귀본 서고에 일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열람이 극히 제한적이다.

단재는 또 이곳에서 군사통일주비(軍事統一籌備)에 참석하고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성토문을 기초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곳에서 단제가 살았던 집은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사합원 형식의 큰집들 사이 이런 뒷골목에 거쳐가 있지 않았을까?

차오떠우후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곳은 황제의 거처인 쓰진청(紫禁城) 북동쪽에 있는데 황제가 되지 못한 황족들과 고위관료들의 집들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고관대작의 집들 뒤 허름한 골목에

그러나 대문 안에는 소위 사합원(四合圓·건물이 마당을 사면으로 둘러싼 형식)이라고 불리는 과거 대저택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또 다시 후통 형태의 골목과 계막지처럼 납작한 집들이 처마를 서로 맞대고 있다.

항상 가난한 살림을 꾸려야 했던 단재선생 역시 이 같은 다세대 주택 어딘가에서 박자혜 여사와 신혼살림을 꾸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집에서 단재가 생활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선생이 자신이 기거한 골목의 이름은 밝혔지만, 번지수는 그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망명객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옥산 교수는 “1919년 작품으로 알려졌던 ‘백세노승의 미인담’에 등장하는 몽골 장수의 집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 차오떠우후통에 있는 몽골군왕 성거린친(僧格林沁)위 집 승왕부를 그린 것 같아 이 무렵에 쓴 소설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망명 10년째인 이즈음 선생의 심경은 유고시 ‘1월28일’에서 엿볼 수 있다. “열해를 갈고 가니 칼날은 푸르다마는 쓸 곳을 모르겠다/축다한들 봄추위니 그 추



따혜이후후통 시절 단제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아내 박자혜와 장남 수범을
환국시키고 홀로 남아 역사연구를 지속했다. 사진은 모습이 크게 변한 후통 입구.

위가 며칠이라/자지 않고 생각하면 긴 밤만 더 기니라/푸른 날을 쓸 곳 없으니
칼아 나는 너를 위해 우노라(부분)”

『조선혁명선언』의 산실 따헤이후후통(1922~1924)

처자를 환국시킨 빈한한 세월 속에 아나키즘 확립

원·명·청나라 시기의 베이징의 일상은 새벽 5시 종루(鐘樓)에서 울리는 ‘아침종’으로 시작돼 저녁 7시 꾸러우(鼓樓)에서 울리는 ‘저녁북’으로 끝을 맺었다. 베이징의 오래된 전통은 1924년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금성을 떠나면서 중단됐다. 꾸러우는 근대 이후 베이징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꾸러우 동쪽 맞은편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이곳이 ‘따헤이후후통(大黑虎胡同)’이다. 단재는 극심한 생활난에다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차오떠우후통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며 부인 박자혜 여사와 장남 수범씨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승용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비좁은 골목, 지금은 외벽마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한두 평이 되나마나한 방들이 다세대를 이루고 있는 따헤이후후통의 풍경은 예나지금이나 이곳이 도시 최하층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느끼게 한다. 당시 단재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900년 영·미·일 등 8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입했을 때 일본군에 의해 꾸러우의 북이 찢겨졌다.
중국인들은 꾸러우를 '밍즈러우(明恥樓)' 라고 부르며 그날의 수치를 잊지않고 되새기고 있다.

리스쥑, 리따차오 등과 교류

혹독한 경제난은 힘든 나날 중에도 단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천고』의 발행마저 더 이상 꾸러나갈 수 없게 만든다. 1921년부터 정열적으로 추진하던 국민대표대회도 파벌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다.

단재는 그러나 이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며 더욱 투철한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로 변모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인 리스쥑(李石曾),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리따차오(李大釗) 등과 사귀며 ‘민족주의적 아나키즘’을 구상했다.

최옥산 교수는 “단재는 이 시기에 에스페란토(폴란드인 자멘호프가 만든 국제 보조어)를 배우며 리스쥑의 소개로 루쉰(魯迅), 쫘우쥘런(周作人), 루쉰의 집에 기거하던 러시아인 예로생꼬 등과 긴밀하게 접촉했던 정황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기념할만한 가장 역사적인 사실은 단재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했다는 것이다. ‘의열단 선언’이라고 불리는 「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은 항일폭력단체인 의열단의 약산 김원봉이 베이징의 단재를 찾아와 투쟁 강령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단재는 이를 통해 “민중은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내정 독립’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은 물론 ‘외교론’, ‘준비론’ 등을 비판하면서 ‘민중 직접 폭력혁명론’을 주창한 것이다. 또 전

통선비였던 단재로 하여금 무정부활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어음위조라는 실천적 행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된다.

③ 대한남아, 대륙인과 통(通)하다

**동북군벌 장쉐량 소유 저택 제2회보합단 근거지로 사용
중국공산주의 시조 리따차오 도움 베이징대 도서열람**

단재의 기질은 ‘외곶’이다. 한평생 타협이란 없었음을 수많은 일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재는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으로 이승만이 거론되자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으려는 이승만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신문에 글을 실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음에도 글자 하나가 틀렸다는 이유로 기고를 중단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왜놈 세상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세수도 꺾듯이 서서 했다는 단재에게는 과연 어떤 벼들이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숙부뻘인 예관 신규식 선생을 비롯해 이회영·시영 형제,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이 단재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식 선생은 구한말 육군의 부위까지 진급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했다가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쑨원(孫文)의 신해혁명이 가담하고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시’를 결성했을



베이징대학 교정에 있는 리따차오의 동상.
그는 지금도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다.

정도로 중국의 명망가들과 친분이 깊었다.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기자 25일간 단식을 계속하다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그 깨끗함이 단재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답사와 취재과정에서는 대한남아 신채호 선생이 좌우를 넘어 대륙인들과 교유한 흔적을 발견하는 수확이 있었다. 뜻밖에도 동북군벌 장쥘린(張作霖)의 아들인 장쉐량(張學良)이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 소유의 저택을 근거지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에서 만난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의 인터뷰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리따차오와도 친밀한 관계를 나눴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도 포착할 수 있었다. 단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스스로 개척한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덕남 여사 장쉐량과 관계 증언

단재 신채호가 군벌(무장세력을 가진 토호)인 장쉐량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얘기다. 이는 7일 밤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사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여사는 중국의 유력인사들이 단재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상하이에 1년 정도 머물다 돌아온 뒤 박용만, 신숙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군정부(軍政府) 건립을 위한 제2회보합단을 만들었는데 이때 장



리따차오의 고가에 있는 응접실. 여기에서 한중의 혁명투사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쉐량 소유의 대저택이 근거지로 제공됐다”고 증언했다. 이 여사는 또 “거의 같은 구조와 규모의 저택이 두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로 반이 헐렸다. 헐린 쪽에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장쉐량이 실력자였던 데다 울타리 안이 미로처럼 복잡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원창후통(文昌胡同)에서 헐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장쉐량의 고가를 찾아냈다. 고가 일부의 주인이라는 50대 남자는 “장쉐량의 부인이 살았던 집이다. 지금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 통신이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자는 부동산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귀띔했다.

리따차오에게 보낸 편지 관심

“저는 전후 10년간을 정치없이 방랑하여 지난한 세월 지치고 시달리며(중략) 몇몇 열사와 함께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적과 싸우기를 기도하였더니 벌써 정세는 틀어지고 기회는 더욱 멀어져 안타깝게 머리를 어루만지는 동안 어느덧 40을 지났습니다(후략)”

단재 신채호가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이자 베이징 도서관의 주인이었던 리따차오에게 1922년 가을, 도서열람을 요청할 목적으로 쓴 편지는 그답지 않게 울적하고 갑갑한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리따차오는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 추앙을 받는 인물로 베이징대 교정에 리따차오 동지라는 금석문과 함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번 기행의 단장인 허원서원대 교수는 “단재의 성격으로 볼 때 중국 유명인사들과의 교류에 숙부뻘인 예관 신규식 선생이나 일찌감치 베이징에 터를 잡았던 이회영·시영 형제가 중간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편지를 보면 선생이 직접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허원 교수는 또 “단재가 논설을 쓰는 신문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정도로 선생의 글은 베이징의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며 “리따차오 역시 공산당 초기에 무정부주의자까지 받아들였을 정도로 폭이 넓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깊이 교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쉐량 저택과 리따차오 고가 50m 거리

이덕남 여사의 설명을 듣고 보합단 근거지로 사용됐다는 장쉐량 소유의 저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은 장쉐량 저택과 리따차오 고가가 직경 상으로 불과 5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구불구불한 후통의 골목길을 따라가더라도 두 집의 거리는 100m 남짓일 정도로 가깝다.

장쉐량은 항일보다 공산주의 말살을 염두에 두고 있던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를 감금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른바 시안(西安)사건을 통해 1937

년 항일민족통일전선인 제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독특한 이력의 인물이다. 결국 장제스의 미움을 사 타이완으로 끌려간 뒤 40년 동안 연금생활을 했으며 장제스 사후에 하와이에서 숨을 거뒀다.

장쉐량과 리따차오의 집이 가깝다고 해서 두 인물이 교류를 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리따차오는 장쉐량의 아버지인 장쭤린이 보낸 사람에 의해 1927년 사살된다.

다만 단재가 보합단 활동을 했던 시기에 리따차오가 고가에 머무르며 한중의 투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나눴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단재 신채호와 리따차오가 각별한 사이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허원교수는 “단재가 1920년대 초에 보합단 활동을 했고 리따차오가 고가에 머물며 사람들을 만난 시기도 1920~1923년까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막역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며 “실제로 리따차오의 고가에는 이 같은 만남을 목적으로 한 응접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쉐량이 단재 등 제2회보합단 관계자들에게 근거지(사진 왼쪽)로 제공했다는
저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④ 다시 서는 들관에서 움켜쥔 뜨거운 혼(魂)이여

역사학자 단재 만주 돌아보고 대고구려사상 정립

200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후 대대적 정비

1910년 4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서인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 권을 들고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등에 머물며 실천적 사상가이자 언론인, 역사학자로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단재 선생의 행적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고증이 이뤄진 것은 역사가(歷史家) 단재다. 『조선상고사』 등 그의 자주적 사관을 뚜렷하게 말해주는 구체적 저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웅이 필요했던 암울한 시대에 영웅을 배출할 조건이 국민적 역량이고, 강한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난 1월4일~9일까지 단재의 망명유적지를 답사한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답사팀은 5일 오후 뤼순감옥을 돌아본 뒤 6인1실 3등 열차로 밤새 만주 벌판을 달려 통화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지안(集安)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돌아봤다. 지안은 고구려가 424년 동안 두 번째 수도로 삼았던 국내성이 있었던 도시다.

단재는 1914년 대종교 종사 윤세복의 초청으로 길림성 환인현에 1년 동안 머물며 고구려 유적을 돌아봤는데, “한 번 본 지안이 김부식의 고구려본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그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재는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가 1920년대 중반까지 연구와 저술을 일단락 한다.

끝으로 중국이 200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후 중국의 국가급 경관지구로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사진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잔해만으로도 웅장한 대고구려

환도산성은 유리왕 22년(서기 3년)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성에서 가까운 산에 축조한 산성이다. 해발 676m 환도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허물어지고 남측성벽과 망대 등 일부만 남아있다. 조선족 안내원은 “전돌로 성을 쌓는 중국과 달리 거대한 돌을 다듬어 '육각 쌓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벽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절벽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산성 안에는 2004년부터 중국이 발굴하기 시작한 궁궐터가 있다. 외침이 있을 경우 국내성을 대신해 수도역할을 했던 곳인데, 342년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의 침입으로 불탔다고 한다. 환도산성을 둘러싼 봉우리의 바깥쪽은 절벽이기 때문에 남쪽 성문만 지키면 되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한다. 안내원은 “저 산봉우리 능선을 한 바퀴 도는데 1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다.



국가급 관광지구로 거듭나다

환도산성 입구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중국의 국가급 여유경구(旅遊景區)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는 표석이 서있다. 지안이 고향인 안내원은 “어렸을 때는 고구려 산성인지도 모르고 뛰어놀던 놀이터였다. 2004년 유네스코 지정 이후 안에 살던 농민들을 내보내고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했다. 엔벤대를 졸업했는데 내가 배운 역사교재에는 ‘중국 변방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단한 줄만 기록돼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유적지에서 만난 중국 상인

동북지방은 추위 때문에 겨울에 유적지의 문을 닫거나 거의 관광객이 없다. 환도산성과 귀족 무덤군이 있는 입구에 답사단이 도착하자 어디선가 새콤한 산(山)열매에 설탕옷을 입힌 꼬치를 파는 상인이 나타났다. 장수왕릉 앞에 선 산삼을 파는 중국인이 서툰 우리말로 수작을 걸기도 했다. 동북항일연합군을 기리는 정우 능원 에서 본 항일 전사들의 복장과 너무 닮았기에 기념 촬영을 했다.



무너져 내린 자존심 국내성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둘레는 2775m에 달했다는데, 현재는 중국 동북해방전쟁과 아파트 공사로 인해 약 400m만 동성가(東盛街)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어 마치 아파트 단지 옆 화단 담장처럼 보인다. 국내성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고 7m에 이르는 성벽의 높이도 1980년대 이후 3m로 낮아졌다. 경사가 가파른 쪽이 성 바깥이고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다.





이제는 장군총이 아니라 장수왕릉

지안현에는 약 1만2000기의 고구려 무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동양의 피라미드로 일컬어지며 과거 장군총으로 불렸던 사진의 무덤은 장수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장수왕릉으로 부른다. 평평한 꼭대기에서 기와와 주춧돌이 발견돼 누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00개에 이르는 돌로 쌓았고, 천장돌은 50톤에 이른다. 너비 33m, 높이는 13m에 달한다.



조작과 훼손에도 우뚝한 호태왕비

장수왕릉과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두 무덤 사이에는 광개토대왕비가 오벨리스크처럼 서있다. 보호각은 유리로 둘러쳐져 있는데 중간에 알루미늄 기둥이 서있어 밖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관리인은 내부 사진촬영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비석은 일본인들이 이끼를 없애려 쇠풀을 발라 태운데다 석회를 이용한 탁본 등으로 크게 훼손됐으며, 글씨를 조작한 의혹도 있다.

얼지 않는 압록강 그러나 겨울성

지안시내에서 바라본 압록강 너머에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북한 만포시가 있다. 산을 경작지로 개간함에 따라 민둥산이 돼버려 더 수해가 잦다고. 지안이 고향인 조선족 안내원은 “어렸을 때 겨울이면 압록강이 얼어 북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강줄기가 국경이기 때문에 강 위에서 노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운봉수력발전소가 생기고 난 뒤로는 압록강이 얼지 않는다” 고 말했다.





'단체 신체호 선생의 망명유적지를 따라' 에 참여한
허원 단장을 비롯한 답사단 일동



천안문

No.7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망명 유적지를 따라 II

고난을 이겨낸 중국 땅을

더 고조 나는

단재의 기상을

만나자

조창완
알자여행사 대표



광활한 중국 땅을 덮고도 남는 단재의 기상을 만나자

많은 사람들에게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 아는 것이 무언가를 물으면 무어라고 답할까. ‘아나키즘’, ‘고구려’ 정도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독사신문’이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정도를 더 말할 것이다. 그런데 단재 선생에게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식의 깊이가 더 큰 사람들일수록 감동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단재에 미친 사람들도 있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고, 단재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사람들이다. 충북대 김승환 교수나 서원대 허원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재문화예술제전의 참여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왜 단재를 그토록 숭앙할까. 그들은 단재 안에 가장 오롯한 정신세계의 극치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재의 깊이는 학술적 깊이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더 명확히 바라본다. 1936년 단재가 차가운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일제의 서슬 퍼런 눈이 있었지만



환도산성 안의 눈덮힌 궁전 유적지

만해 한용운이 비석을 마련하고, 오세창이 비문을 썼다. 몇년전 단재 문화예술 제전에 강사로 참여한 도올 김용옥이 단재의 사당 문밖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흙모의 참배를 올린 것도 단재의 사상적 깊이와 넓이에 감명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8일 단재 선생의 탄신지인 충북 청원군 낭성면에서 시작된 단신 128주년 기념 현화식으로 시작된 단재 추모행사는 2009년 1월 9일 중국내 단재 유적지 답사로 끝을 맺었다. 필자는 이 행사를 동행하면서 다시금 단재 정신을 기억해 냈다.

단재 선생의 순국지 다롄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한시간만에 다롄(大連) 공항에 착륙했다. 한반도를 향한 두 개의 반도 중에 하나인 랴오닝반도의 최남단 도시인 다롄은 중국 근대사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다. 청일전쟁 후에는 부동항과 동아시아 야욕을 가진 러시아가 조차(租借)했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대륙에 대한 야욕을 가진 일본에게 조차당하는 비극의 땅이기 때문이다.

첫날 해질 무렵에 다롄에 도착한 일행은 변화가인 텐진지에(天津街)의 양꼬치 집에서 밤참에 빠졌다. 서원대 역사교육학과 허원 교수를 비롯해 기자, 교사 등 12명의 소박한 사람들은 단재라는 한 모티브 앞에서 이 길을 나선 이들이다. 미리 영하 20도를 넘는 강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단재

를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밤참을 한 다롄 역 앞은 1932년 우당 이회영(李會榮 1867~ 1932) 선생이 체포되어 구타로 사망한 다롄항과 가깝다는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한다.

다음날 일찍 여장을 챙겨 버스에 올랐다. 파리엔에서 한시간여를 달리면 뤼순(旅順)이 있다. 뤼순은 랴오닝 반도 끝단에 있는 해군도시다. 이곳과 산둥반도 끝단 엔타이 사이가 뚫리면 발해만에 침략자가 들어갈 수 있고, 결국 텐진을 거쳐 베이징에 상륙할 수 있다. 아편전쟁이후 몇차례 이 길이 뚫리면서 베이징은 서구 제국이나 일본의 손에 유린당했다.

하지만 뤼순이 우리에게 남다른 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이곳에서 처형됐고, 그로부터 약 26년 후인 1936년 2월 21일에 단재선생이 옥사했기 때문이다. 겨울인데다 월요일 오전이어선지 우리를 제외하고 이곳을 찾은 이들이 거의 없다. 뤼순감옥은 러시아가 지은 하얀 벽돌 부분과 일본이 지은 붉은 벽돌로 구분되는데, 일본은 해군기지인 이곳에 가장 중요한 수감자들을 모았다.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이나 고문도구가 있는 심문실 등을 지나니 별채로 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 수감터를 만난다. 일본 대륙 침략의 선도자를 암살한 만큼 안의사의 감방은 주변 건물로 둘러쌓인 감옥 중 심부에 있었다. 수감 방 옆에는 별도 감시자의 방이 있을 정도였다. 허위 교수의 재청으로 일행은 잠시 목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

다시 죄수동에 들어가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단재 선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단재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있다. “민중은 우

리 혁명의 핵심 역량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가...”로 시작된 이 글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1월에 써준 것이다. 만해 한용운(韓龍雲)의 「조선독립의 서」와 더불어 식민지 시대 2대 명문장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굴하지 않아야 하는 민족의 사명을 말해준다.

일행은 마지막으로 의료실과 처형장을 봤다. 별관인 의료실은 말이 의료실이지 마루타 실험을 하던 장소였다. 교수형이 처해지던 처형실은 처형자를 나무통 속으로 집어 넣어 그대로 묻는 방식을 볼 수 있어서 일본의 시체에 대한 경시를 볼 수 있다. 단재 선생은 1936년 2월 21일 이곳에서 옥사하는 데,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와서 가까스로 이곳에서 암장을 피하고 어렵사리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다.

일행은 뤼순 감옥을 나와 다시 파리엔으로 들어갔다. 일본의 심장부 같았던 파리엔이기에 별다른 독립 유적지가 없어서 러시아시절 조차한 흔적이 남은 ‘러시아 거리’를 들렀다. 파리엔 등지는 부동향이지만 동북의 차가운 기운이 있기에 옷깃을 여밀 수 밖에 없다. 러시아거리를 둘러보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다음 목적지는 단재 선생이 고구려사를 쓰기 위해 들렀던 지안(集安)이다.

다렌의 중요한 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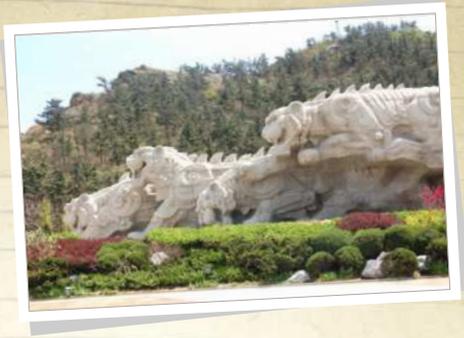
다렌시는 라오둥반도 남단의 해안 도시이다. 근대 이후에는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이 열성적으로 접근하려 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다렌은 북온대 지역으로 난온대 해양성 기후에 속한다. 기후가 따뜻하고 사계절이 선명하다. 다렌 항만은 물이 깊고 넓으며 겨울에는 얼지 않는다. 항구 통과 물동량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다렌시는 산과 바다가 접해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기후가 적합해 중국 북방 최고의 여행, 휴양, 피서 명승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렌역 앞에서 다렌-뤼순 여행을 묶는 패키지를 150위안 가량에 판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 이용하면 좋다.

다렌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일본 등의 조차지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특색을 갖게 되었다. 다렌을 대표하는 것은 다양한 모양새로 추억에 젖게 하는 전차와 안마와 광장 문화를 들 수 있다. 다렌은 도시 전체가 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공원인 곳도 있지만 두 개가 별다른 차이 없이 쓰이는데, 시 전체가 광장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상업 지구가 몰린 승리광장(勝利廣場)과 휴식 문화가 발달된 중산광장(中山廣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기를 차거나 연을 날리며 시간을 보낸다. 다른 도시에서 보기 힘든 2인 자전거(雙人自行車)도 다렌의 명물 가운데 하나이다. 광장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한 대의 자전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라오후탄공위엔(老虎灘公園 노호탄공원)

라오후탄의 호랑이들은 따리엔의 몇 상징물 가운데 하나다. 이 공원은 시 중심에서 5 km 떨어진 동남쪽에 있으며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다. 들머간 만을 중심으로 각종 오락시설과 볼거리가 배치되어 있다. 안에는 중국서 가장 큰 산호 전시관등이 있다.

공원의 탄생에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웅맹한 호랑이 한 마리가 해변가로 뛰어들어와 어민들을 해치고 있었다. 이때 청년 석조가 호랑이와 결투하여 호랑이를 죽였으나 자신도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석조의 용기를 빌어 이 공원을 만들었다. 볼거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조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맞은편에는 중국 학(鶴)들을 자생시키는 공원이 있다.



라오둥공위엔(勞動公園 노동공원)

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기차역에서 나와 대형 호텔이 즐비한 중심가를 500미터쯤 직진하면 나온다. 휴식 기능과 더불어 오락기능, 문화활동 기능을 겸한 공원이다. 내부에는 중국 프로리그에서 거의 절대적인 성적을 낸 다렌 축구팀을 기념하기 위한 축구공 모양의 기념모형도 있다. 공원 안에는 공작, 단정학, 사슴 등이 있으며, 공원 남쪽에는 수상공원을 만들어 모터보트도 탈 수 있다.



성하이공위엔(星海公園 성해공원)

성하이공위엔은 시 중심 서남 5km 밖에 있는 유명한 해변 공원이다. 남쪽은 해변이고 양측은 돌산이 바다 쪽으로 닿아 풍랑을 막아 주는 천연해수욕장이다. 공원 안에는 또 한 폭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 여행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 해경을 감상하기도 한다. 공원 내의 성래 바다 밑 세계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통도식 수족관이다. 200여 종의 진귀한 물고기를 전시하고 있다



다롄자연박물관

(大連自然博物館 대련자연박물관)

성하이공위엔 근처에 있으며, 1950년에 개관한 기차역 부근의 박물관을 최근에 옮겼다. 여기는 해양 생물, 지질 광물, 생명 기원과 인류 출현, 동물, 식물 등 5개 부분이 있다. 2,700여 종의 표본이 진열되어 있다.

진스탄공위엔

(金石灘公園 금석탄공원)

진스탄공위엔은 따리엔시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거대한 해안 공원이다. 6킬로미터 정도의 해안에 기이한 바위들이 서 있어서 신이 만든 조각 공원이라는 애칭이 있다.



뤼순(旅順 여순)

뤼순은 랴오둥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이며 천연적인 부동항 중의 하나다. 파리엔과는 차로 한 시간 거리로 역시 근대사의 격랑을 탄 곳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암살하여 감혀 있었던 곳이어서 감회가 남다른 곳이다. 신채호 선생도 이곳에서 순국했다. 이곳은 현재 중국의 주요 군항 가운데 하나므로 공식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여행사에 합류되어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라오티에산(老鐵山)은 시의 서남쪽에 있는데 바다와 접한 거대한 벼랑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새들의 자생지여서 독특한 느낌을 준다. 뤼순의 완충우(萬忠墓)는 청일전쟁 당시 일군에게 암살된 시신들을 모아 놓은 곳으로 우리 나라의 7백의총 을 연상시킨다.

뤼순반도 북쪽 해안에 130미터 높이의 산에 백탑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군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망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때문에 원래는 표충탑(表忠塔)으로 불렸으나 1945년 공산화와 더불어 바이위산타(白玉山塔)로 바뀌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또 시내 북쪽에는 동지관산(東鷄冠山)이 있다. 이곳은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싸운 곳인데, 전쟁 유적이 보호되어 있는데, 러어전쟁위즈(日俄戰爭遺址)으로 부른다.

1904 1905년, 중국에 대한 야욕에 불타던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시작했다. 뤼순과 다렌은 모두 청일전쟁 후 일본에게 조차됐으나 곧 조차권을 빼앗겼다. 후에는 러시아의 조차지로 바뀌었다. 러일전쟁의 가장 큰 격전지이자 쟁탈지는 뤼순과 다렌이었다. 특히 해군 기지가 있었던 뤼순의 역사는 더 험난했다. 이 전쟁은 뤼순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지금 남은 러일전쟁 유적은 띠앤안파오다이(電岩砲台), 203고지(高地), 동지관산베이바오루(東鷄冠山北堡壘)와 왕다이파오다이(望台砲台) 등이다.

단재 선생의 뜻을 이어 고구려를 만난다

파리엔에서 지안으로 가는 방식은 단둥(丹東)을 거쳐서 육로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겨울의 혹한을 피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밤기차를 이용했다. 파리엔역에서 16:21분에 출발하는 N185를 타면 다음날 새벽 6:34분에 지안 인근 대도시 통화(通化)에 닿는다. 밤새 기차는 선양, 푸순 등을 거쳐서 다음날 새벽에 예정대로 통화역에 내렸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참가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가운 공기를 만나야 했다. 그날 통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23도였다. 그나마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지 이곳은 예사로 영하 30도 아래로 넘어가는 곳이다.

대부분은 잠을 자면서 지나 잘 모르지만 기차가 지난 푸순(撫順)이나 신빈(新賓), 메이화코우(梅花口) 등은 항일전사들이 해방까지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현대식 옷으로 겹겹이 입어도 추운 이곳에서 부실한 옷과 형편없는 무기로 무장투쟁에 참여한 전사들은 노숙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결국 그렇게 얻은 이 땅의 지금 모습을 생각하니 죄스러움에 산 위에 자란 작은 나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졌다. 아울러 다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땅에 와서 투쟁에 참여할 민족의 역량이 될까가 저절로 걱정됐다.

단재 선생은 1914년 업무 차 만주에 들렀다가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다. 콧물이 나오자마자 얼 만큼 혹독한 추위였지만 지안을 향하는 두시간 여의 여정은 현지 가이드의 편안한 이야기로 인해 금방 훈훈해졌다. 고국을 피해 이곳으로 피

신은 사람들은 이곳에 벼농사를 처음 보급했다. 우리 민족의 벼농사를 보고 한족들도 벼농사를 따라 하지만 밥맛만 보고도 조선족이 지은 것인지 한족이 지은 것인지 알만큼 우리 민족의 농사술을 뛰어났다. 물론 이제 농촌에 남은 조선족 동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안에서는 환도산성과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압록강, 장수왕릉, 광개토대왕릉비와 태왕릉을 들렀다. 웅혼한 고구려인들의 기상이 살아있는 성스러운 장소들인 만큼 참가자들의 눈은 흥미로 가득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리는 압록강변에는 고구려 방식의 불고기 집에서 점심을 했다. 겨울이라 따뜻한 구들 위에서 먹는 지안식 불고기 요리의 매력에 모두가 빠져서 구들이 타는 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먹었다. 덕분에 참가자중 한 여교사분의 파카가 조금 눌었지만, 지안의 바이지우(白酒)로 인해 고구려 혼에 접신이나 한듯 모두가 흥겨운 분위기다. 통화에 있는 동북항일연군 중심인물 양정우의 묘를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서둘러 지안 답사를 마치고 통화로 향했다. 통화시 중심부에 자리한 양정우능원은 동북항일연군 1군의 군단장인 양정우(楊靖宇)의 묘다. 임금이나 황제의 묘에나 쓰이는 능(陵)이 붙은 이곳에는 양정우가 이끌던 1군의 1사단장인 이홍광(李紅光)을 비롯해 이춘열, 이동광, 김정길, 김순희 등 우리 조상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동북항일운동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말해준다. 또 조직도에서는 2군단 3사단장으로 김일성이 기록되어 있어 눈에 띈다.

단재 선생이 가장 오래 거주한 베이징

통화에서 저녁을 하고 일행은 다시 기차에 올랐다. 21 : 35분에 출발하는 K430 열차는 15시간25분만인 다음날 오후 1시에 베이징역에 닿는다. 밤시간의 기차는 그런대로 버틸만 하지만 오전 내내 기차에서 버티는 것에는 좀 답답해 한다. 불과 80여년전만 해도 두곳을 왕래한 단재선생의 수고에 비할 길이 아니지만 문명에 익숙한 이들에게 한 나절의 여유도 번거롭다.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해 바로 진스광제(錦什坊街)로 향했다. 이곳은 단재선생이 1920년 박자혜 여사와 결혼해 험난한 베이징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라마식 하얀 탑이 인상적인 바이타쓰(白塔寺)가 바로 보이는 이 골목 21번지에 자리한 단재선생 집은 옛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전형적인 벽돌형 후통 주택인 이 집은 1960년대 완전히 새로 만들어 집이다. 하지만 이 집조차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재개발되어 대형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1921년 이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곳에서 큰 아들인 수범씨를 낳은 것이다. 진스광제 생활중 가장 역점적인 일은 『천고(天鼓)』를 발간한 것이다. 이후 단재 가족은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으로 집을 옮긴다.

차오떠우후통을 방문하기 전 우리는 단재 선생이 베이징 생활중 가끔 찾아와 집필활동을 하던 보타암(普陀庵 현 石燈胡同)을 찾았다. 루쉰의 동생인 쉰우쥘런(周作人 1885~ 1966) 등도 찾아와 집필을 하던 이곳은 작은 암자다. 필자가

이전에 찾은 기억이 있었지만 스펡후통(石燈胡同)은 여전히 찾기 힘든 골목이었다. 역시 1980년대에 재개발해 압자의 흔적은 없지만 스펡후통 10번지가 옛 보타암 자리라는 말에 그 집을 찾았다. 낯선 집에 가끔씩 한국 연구자가 찾아와 선지 반가운 모습으로 주민들이 이 집을 안내해준다.

이곳을 급히 보고 우리는 차오떠우후통(炒豆胡同)으로 향했다. 이 후통은 이제는 잘 개발된 옛 문화거리 난루오꾸상(南鑼鼓巷)에 접한 한 길이다. 단재의 베이징 생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베이징징마오따썬(北京經貿大學) 최옥산 교수는 “차오또우후통에서의 첫 일년, 단재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의 혼자서 손으로 논설, 독립운동소식, 내국신문(內國新聞), 해외잡기(海外雜俎) 등 다양한 내용으로 묶은 한문 월간잡지 『천고(天鼓)』를 집필하는 한편 군사통일주비(軍事統一籌備)에 참석하고 임정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성토문을 기초하고, 「통일책진회발기취지서」를 작성 발표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중에서도 『천고』의 집필에는 각별한 정성을 쏟은 듯하다”고 적었다. 단재 선생의 집필 활동에 정점에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일년도 채우지 못해 단재는 가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군벌들의 난립으로 인해 복잡한 이곳에서 가족을 꾸릴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훗날 아들 수범씨는 아버지의 사망소식으로 뒤순을 찾았다. 이후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평생을 마치는데, 단재 선생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겪다가 1991년 사망했다.

가족이 떠난 후 단재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단재는 집을 차오떠우후통에서

멀지 않은 따헤이후후통(大黑虎胡同)으로 옮겼다. 길이 150미터의 협소한 골목으로 이 인근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곳이다. 이때 벽초 홍명희도 단재의 집에 들렀다가 기겁할 만큼 더러운 이불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사실이 이불은 단재가 벽초가 찾아오기 얼마전 찾은 한 노인집의 이불이 너무 초라해 바꾸어 준 것이었다. 이때 단재는 이불의 위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벽초를 꾸짖었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막힘이 없는 인물이었다.

베이징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밤에는 베이징에 사는 고 신수범선생의 부인 이덕남 여사를 만났다. 이 여사는 따님(단재 선생 증손녀)이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주로 베이징에 거주하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한다. 신수범 선생을 만나던 당시 인기 절정의 운동선수이던 이 여사는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은 신수범 선생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의 눈을 피해 다니는 남편을 간첩으로 의심할 만큼 힘들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고 찾아간 독립운동가들이 단재선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뒤를 이어 유지를 잇고 있다. 이 여사는 친일파 연구가 조문기 선생이 했다는 “조국이 두 개만 있다면 정말 갖고 싶지 않은 나라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반역사적인 흐름을 개탄했다.

다음날 필자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방문단은 남은 베이징의 단재선생유적을 답사하고 9일 귀국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필자는 9일부터 타이완을 방문했다. 전혀 상관없는 여정이지만 필자는 타이베이에서 한시간 거리인 지룽항(基隆港)을 경유했다. 지룽항은 단재선생이 일경에 체포

된 곳이다. 단재선생은 1928년 5월8일 타이베이 지룽항(基隆港)에 상륙하려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旅順(旅順)감옥으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하다가 1936년 2월21일 영면했다.

단재 선생은 경술국치가 벌어진 1910년 중국으로 피신해 26년여간 정치인, 언론인, 사상가, 역사가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곤궁한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진한 순일무잡한 위대한 사상가다. 그의 사상은 어릴 적부터 배운 유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모두를 섭렵했지만 어느 한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조국 해방을 위한 정도를 찾는 것이었다. 그가 거의 홀홀단신으로 1921년 1월부터 펴낸 『천고(天鼓)』는 우리 독립운동 소식은 물론이고 동서양 모든 사상을 섭렵한 그의 광범위한 지식체계를 보여준다. 그는 중국어로 발행된 이 잡지를 통해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노력은 임시정부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마오쩌둥 등이 이끈 홍군(紅軍)과의 결합세력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현됐고, 결국 해방공간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지나간 단재의 길은 블라디보스토크, 칭다오, 상하이 등을 더 추가해야 겨만 조금 더 정확해진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그 흔적을 만나면서 우리가 단재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부활이나 김구선생의 폼하 등으로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단재 선생을 구천에서 활

말을 잃을 것 같다. 굳이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
가는 소멸할 것이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단재선생을 여기 모시며

도종환

살아서 뜨거웠고
죽어서 더욱 깨끗했던 당신

살아서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고
죽어서 더욱 형형하게 빛나던 선생이시여.

님 가신 지 예순 해에
우리 앞에 님의 모습 바로세우며
우리가 이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빼앗긴 나라 되찾기 위해
한 생애 다 바치고도
돌아와 내땅에서 더욱 쓸쓸하였던 세월

이제 온 겨레
님의 형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그토록 꿈꾸시던 님나라 바로세우기 위해
선생의 뜨거운 넋 여기 세웁니다.

내 지닌 모든 것 조국에 다 바치고 나서야
영원히 사는 목숨의 의미를
당신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살아서 뜨거웠고
죽어서 더욱 깨끗했던 선생이시여.

칠천만 겨레의
영원한 단재선생이시여.

단재 신채호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위인이다. 한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이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다. 또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한 언론인이자 식민지 반식민지하의 조선인들을 일깨운 교육자이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다.

단재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그의 한 줌 유골이 압록강을 건너고, 2월 24일 경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충북 청원군 귀래리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에 올라 있을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 단재는 일제의 시민이 되는 것이므로 단재는 단호히 호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 살아서 환국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했지만, 단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에 이르러 겨우 호적을 되찾게 된다.

죽어서도 단재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가매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처럼 단재는 민족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고 죽어 버린 것이다. 한편 상해임시정부 당시 이승만을 의정원에서 축출했던 인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단재는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단재가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민족직접혁명론을 주장하고 무장봉기나 폭력 암살 등 테러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단재와 독립운동가들을 추앙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이리하여 충북 청원군 귀래리에 사당이 세워졌고 묘소가 단장되었다. 서서히 역사에 복권되기 시작한 것이다.